

#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2022-11

수시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Tourism in Population-Declining Areas

강지수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수시연구 2022-11

#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Tourism in Population-Declining Areas

강지수·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연구책임

강지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 연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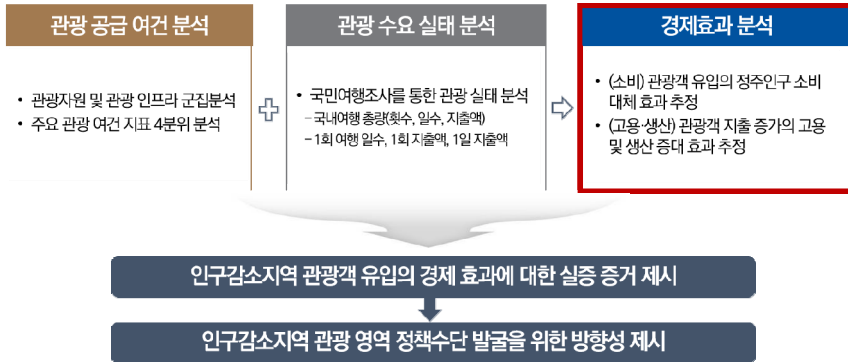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2020년 5,184만 명을 기점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2070년에는 3,766만 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지역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기초 지자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지역관광진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각 지역이 관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그러나 아직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설계 단계에서 참고할 기초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에 관한 실증 증거를 제시하고자 함
- 특히 단순한 실증 증거 제시를 넘어 향후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①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분석, ② 관광 수요 실태 분석, ③ 경제효과 분석 등 총 3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 영역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그림 1] 분석 개요



## 2. 인구감소지역 현황 및 관광 여건 분석

### 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은 다음과 같음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 나. 인구감소지역 관광 여건 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은 크게 관광자원과 관광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 분석을 위한 지표는 <표 2>와 같음

<표 2>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분석지표

구분	분석지표	
관광자원	자연생태자원	- 자연공원면적(km <sup>2</sup> ), 자연휴양림면적(km <sup>2</sup> ), 자연명승지면적(km <sup>2</sup> )
	역사문화자원	- 문화재(개), 박물관/미술관(개)
	레저휴양시설자원	- 관광객 이용시설업(개) - 레저휴양시설(카지노, 유원시설, 수목원, 식물원, 스키장, 골프장)(개)
관광인프라	숙박인프라	- 관광숙박업객실수(개)
	안내인프라	- 관광안내소수(개)
	교통인프라	- 도로포장률(%)
	사업인프라	- 관광사업체수(개)
	인력인프라	- 총인구(명), 20~30대 인구 비중(%)

- 본 연구에서는 상기 분석지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개별 지역별로 접근하기보다는 군집 분석과 4분위수 분석을 실시함
- 이는 유사한 관광 여건을 갖는 인구감소지역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관광 공급 여건 분석에 있어 유의미하거나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기 위함임

### 1) 군집 분석 결과

- 군집 분석에는 계층적 군집 분석, 비계층적 군집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 중 k-평균법(k-means)을 활용함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관련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 I(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유형 II(역사문화자원 중심형), 유형 III(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 IV(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등으로 분류되었음

〈표 3〉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군집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유형 I (11개)	강원영월군 전남진도군	강원정선군 전북무주군	강원화천군 전북진안군	경북울진군 충북단양군	경북청송군	전남신안군	전남완도군
유형 II (39개)	강원삼척시 경북고령군 경북청도군 전남장성군 전북장수군 충남예산군	경남거창군 경북고령군 전남강진군 전남장흥군 전북정읍시 충남청양군	경남고성군 경북상주시 전남곡성군 전남함평군 충남금산군 충북영동군	경남밀양시 경북성주군 전남담양군 전남해남군 충남논산시 충북옥천군	경남의령군 경북영양군 전남보성군 전북김제시 충남보령시	경남창녕군 경북영천시 전남영광군 전북순창군 충남부여군	경남함안군 경북의성군 전남영암군 전북임실군 충남서천군
유형 III (10개)	강원고성군 전북고창군	강원양구군 전북부안군	강원철원군 충남태안군	강원태백시	강원평창군	경기연천군	경북영덕군
유형 IV (22개)	강원양양군 경남함양군 전남고흥군 충북제천시	강원홍천군 경남합천군 전남구례군	강원횡성군 경북문경시 전남화순군	경기가평군 경북봉화군 전북남원시	경남남해군 경북안동시 충남공주시	경남산청군 경북영주시 충북괴산군	경남하동군 경북울릉군 충북보은군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 2) 관광인프라 기반 군집 분석

- 관광인프라 기반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에 따라 유형 I(관광인프라 취약형), 유형 II(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유형 III(숙박인프라 중심형), 유형 IV(관광인프라 준취약형)로 분류되었음
- 군집 유형별로 관광인프라의 취약 분야나 취약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표 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프라 군집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유형 I (25개)	강원고성군 경북군위군 전남구례군 전북진안군	강원양구군 경북봉화군 전남진도군 충남청양군	강원양양군 경북영양군 전남함평군 충북단양군	강원화천군 경북울릉군 전북무주군 충북보은군	경남산청군 경북청송군 전북순창군	경남의령군 전남강진군 전북임실군	경북고령군 전남곡성군 전북장수군
유형 II (10개)	경남밀양시 충남논산시	경북상주시 충남보령시	경북안동시 충북제천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전북정읍시	충남공주시
유형 III (15개)	강원삼척시 전남고흥군 충남태안군	강원홍천군 전남해남군	경기가평군 전남화순군	경남거창군 전북김제시	경남창녕군 전북남원시	경남함안군 충남부여군	경북문경시 충남예산군
유형 IV (32개)	강원영월군 경남고성군 경북울진군 전남영암군 충남서천군	강원정선군 경남남해군 경북의성군 전남완도군 충북괴산군	강원철원군 경남하동군 경북청도군 전남장성군 충북영동군	강원태백시 경남함양군 전남담양군 전남장흥군 충북옥천군	강원평창군 경남합천군 전남보성군 전북고창군	강원횡성군 경북성주군 전남신안군 전북부안군	경기연천군 경북영덕군 전남영광군 충남금산군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 3) 4분위수 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4분위수 분석을 실시함
-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의 각 하위 지표별로 1~4분위(하위 25%, 하위 25%~중위, 중위~상위 25%, 상위 25%)로 구분하여 살펴봄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별 4분위수 분석에 따르면,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레저휴양시설자원 모두 지역 간에 면적이나 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4) 군집 분석 및 4분위수 분석의 시사점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여건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관광 공급 차원의 내부 여건은 다양하며 일률적이지 않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적 관점에서 각 지역의 관광 여건을 진단하고 특성과 잠재력을 파악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인구감소지역의 국내관광 현황 분석

-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실태에 관한 국가승인통계인 <국민여행조사>를 이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국민 국내관광 현황을 분석함
  - 각 시군구별 여행 실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1)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 지역 간 비교, 2) 인구감소지역 내 군집 간 비교, 3)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기초 자료를 생산함
-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인구감소지역은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서 국내여행 횟수, 일수, 총 지출액 모두 평균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의 국내여행 총량, 즉 관광시장 규모가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서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관광자원 군집별로 보면, 다양한 특성의 자원이 혼합된(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 시설자원 혼합형, 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역사문화자원 중심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행 총량이 높음
- 관광인프라 군집별로 보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지역(숙박인프라 중심형, 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여행 총량이 높음
  -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프라 수준에 따라 관광시장 활성화 정도에 차이 존재
- 국내여행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에서의 1회 여행 일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관광여행을 기준으로 보면 비인구감소지역에서의 1회 여행 일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1회 지출액, 1일 지출액으로 대변되는 여행 단가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자원 군집별로는 1회 여행일수의 경우, 자연생태자원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지역에서 그 외 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고, 1회 및 1일 지출액의 경우 관광자원 군집에 따라 뚜렷한 특성을 보이지는 않았음
- 관광인프라 군집별로는 1회 여행 일수의 경우는 군집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1회·1일 지출액의 경우 인프라가 열악한 유형에 속한 지역의 평균 값이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비해 높았음
  - 이는 숙박, 교통 등 관광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여행지에서의 물가나 이동 비용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존재함

#### 4.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을 정주인구 소비 대체 효과와 고용 및 생산 효과 측면에서 살펴봄

## 가. 관광객 유입의 정주민구 소비 대체 규모 추정

-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민구 감소가 유발할 수 있는 지역 소비 축소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관광객 유입 시 소비 규모와 비교함
  - 정주민구 1인당 연간 소비액과 관광객 소비의 비율을 계산하여 제시하며 이 비율은 정주민구 1인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분을 상쇄하기 위한 필요 관광객 수로 해석할 수 있음
- (정주민구 소비액) 민간 빅데이터(신용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민구 소비액을 분석함
  - 활용자료는 BC카드 및 신한카드를 통해 지출된 신용카드 소비액을 총 개인 소비 지출액(모든 지불 수단 포함)으로 환산한 자료임
- (관광객 소비액) 국민여행조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 지출액을 유형별(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파악하여 사용함
- 관광객 1인이 유입됨에 따른 정주민구 소비 대체효과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 및 정주민구의 1인당 지출액이 모두 낮지만, 정주민구 1인 지출액 차이에 비해서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 코로나19 기간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의 감소로 인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정주민구 1인 소비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관광객 수는 2019년 41.7명, 2020년 52.7명, 2021년 61.5명으로 점차 증가함
  - 비인구감소지역 역시 정주민구 1인 소비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관광객 수가 2019년 64.1명, 2020년 79.2명, 2021년 83.9명으로 점차 증가함

## 나. 관광객 유입의 생산 및 고용 효과 분석

### 1) 분석 대상 및 분석 자료

- 본 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 유입이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결과는 관광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광객 유입 정책의 효과를 예상함에 있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분석 대상은 전국의 161개 시구 지역이며,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82개, 비인구감소지역 79개 지역으로 구성됨(79개 지역에는 특별 및 광역시가 포함됨)
- 분석기간은 고용 효과 분석의 경우 2019~2021년이며, 생산 효과 분석은 2019년임
  - 고용 및 생산 분석 모두 가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함
- 분석을 위해서 국민여행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각각 시군·연도 단위로 구축하여 사용하였음

### 2) 분석 결과

- (고용) 실증분석에 따르면 관광 수입의 1% 증가는 인구감소지역 고용을 0.18%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 고용 증대 효과는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에서 더욱 크게 추정되었으나,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해보았을 때, 성별·연령(청년층, 중장년층)에 관계없이 관광 수입 증가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생산) 관광 수입 1% 증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산(GRDP)을 0.1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 증대 효과는 주로 관광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관광객 유입은 인구감소지역 고용 및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관광 관련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고용 및 생산 효과의 격차가 있음  
- 관광자원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관광인프라 차이로 인한 효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 관광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관련 서비스업 고용 및 생산 효과도 제한적이고 관광 관련 서비스업 이외 산업에는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관찰됨

##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 위기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광 영역에서도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있어 관광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음
-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문제에 대해 관광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한 방향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수요 창출 및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관광객 1인 유입의 효과를 정주인구의 소비 대체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구 감소지역에서의 관광객 유입 정책이 비인구감소지역에서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하여 방문 소비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형 관광수요와 재방문 관광수요를 창출 및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형의 여행방식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 수요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이 지역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관광인프라의 수준의 편차는 크고, 관광인프라 수준에 따라 관광객 유입의 고용 및 생산 효과에도 차이가 발생함
- 즉,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를 제고하여 지역공동체 붕괴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목적지로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등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인구감소지역의 문제는 관광공급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크게 관광인력 부족, 관광숙박 부족, 관광안내 부족, 관광교통 부족 문제 등으로 나타남
- 셋째,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관계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사업들을 추진 중임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인구의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문체부의 신규 정책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b>제2장 인구감소지역 현황 및 관광 여건 분석</b> .....	<b>11</b>
제1절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현황	13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13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현황	17
제2절 인구감소지역 관광여건 분석	21
1. 분석 개요	21
2. 분석 결과	23
제3절 소결	35
<b>제3장 인구감소지역의 국내관광 현황 분석</b> .....	<b>37</b>
제1절 인구감소지역 국내관광 현황	39
1. 분석 개요	39
2. 분석 결과	40
제2절 소결	59
<b>제4장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b> .....	<b>61</b>
제1절 관광의 경제효과 관련 선행연구	63

1. 국내 선행연구	63
2. 해외 선행연구	64
3. 시사점	65
제2절 관광객 유입의 정주인구 소비 대체 규모 추정	67
1. 분석 개요	67
2. 분석 결과	69
제3절 관광객 유입의 생산 및 고용 효과 분석	74
1. 분석 개요	74
2. 분석 자료	75
3. 분석 방법	76
4. 분석 결과	77
제4절 소결	85
<b>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b>	<b>87</b>
제1절 결론	89
제2절 정책적 시사점	91
 <b>참고문헌 /</b>	 <b>97</b>
 <b>ABSTRACT /</b>	 <b>101</b>

---

## 표 목차

〈표 1-1〉 연구 수행 방법	8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16
〈표 2-2〉 기금사업 주요 사례	18
〈표 2-3〉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분석지표	22
〈표 2-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군집별 관광지표 평균	24
〈표 2-5〉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군집별 해당 지역	24
〈표 2-6〉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프라 군집별 관광지표 평균	25
〈표 2-7〉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프라 군집별 해당 지역	25
〈표 2-8〉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생태자원 4분위별 해당 지역	26
〈표 2-9〉 인구감소지역의 역사문화자원 4분위별 해당 지역	27
〈표 2-10〉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4분위별 해당 지역	28
〈표 2-11〉 인구감소지역의 레저휴양시설 4분위별 해당 지역	29
〈표 2-12〉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숙박업 4분위별 해당 지역	30
〈표 2-13〉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안내소 4분위별 해당 지역	31
〈표 2-14〉 인구감소지역의 도로포장률 4분위별 해당 지역	31
〈표 2-15〉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사업체 4분위별 해당 지역	32
〈표 2-16〉 인구감소지역의 총인구수 4분위별 해당 지역	33
〈표 2-17〉 인구감소지역의 20-30대 인구 비중 4분위별 해당 지역	34
〈표 3-1〉 관광자원 군집별 국내여행 횟수(2019-2021)	42
〈표 3-2〉 관광인프라 군집별 국내여행 횟수(2019-2021)	43
〈표 3-3〉 관광자원 군집별 국내여행 일수(2019-2021)	45
〈표 3-4〉 관광인프라 군집별 국내여행 일수(2019-2021)	46
〈표 3-5〉 관광자원 군집별 1회 여행 일수(2019-2021)	48
〈표 3-6〉 관광인프라 군집별 1회 여행 일수(2019-2021)	49
〈표 3-7〉 관광자원 군집별 국내여행 총 지출액(2019-2021)	51
〈표 3-8〉 관광인프라 군집별 국내여행 총 지출액(2019-2021)	52
〈표 3-9〉 관광자원 군집별 1회 여행당 지출액(2019-2021)	54

〈표 3-10〉 관광인프라 군집별 1회 여행당 지출액(2019-2021)	55
〈표 3-11〉 관광자원 군집별 1일 지출액(2019-2021)	57
〈표 3-12〉 관광인프라 군집별 1일 지출액(2019-2021)	58
〈표 4-1〉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정주민구 소비 대체 효과	69
〈표 4-2〉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정주민구 소비 대체 효과: 관광자원 군집별	70
〈표 4-3〉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정주민구 소비 대체 효과: 관광인프라 군집별	71
〈표 4-4〉 비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정주민구 소비 대체 효과	72
〈표 4-5〉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78
〈표 4-6〉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78
〈표 4-7〉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관광자원 군집별	79
〈표 4-8〉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관광자원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79
〈표 4-9〉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관광인프라 군집별	81
〈표 4-10〉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관광인프라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81
〈표 4-11〉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생산(GRDP) 효과	84

---

## 그림 목차

[그림 1-1] 지역 쇠퇴와 인구 감소의 악순환 관계	4
[그림 1-2] 분석 개요	6
[그림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9
[그림 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16
[그림 3-1] 국내여행 횟수(2019-2021)	40
[그림 3-2] 국내여행 일수(2019-2021)	44
[그림 3-3] 인구감소지역 1회 여행 일수(2019-2021)	47
[그림 3-4] 국내여행 총 지출액(2019-2021)	50
[그림 3-5] 국내여행 1회 지출액(2019-2021)	53
[그림 3-6] 국내여행 1일 지출액(2019-2021)	56
[그림 4-1] 인구감소지역 정주민구 1인 대체를 위한 필요 관광객 수(명)	69
[그림 4-2] 비인구감소지역 정주민구 1인 대체를 위한 필요 관광객 수(명)	72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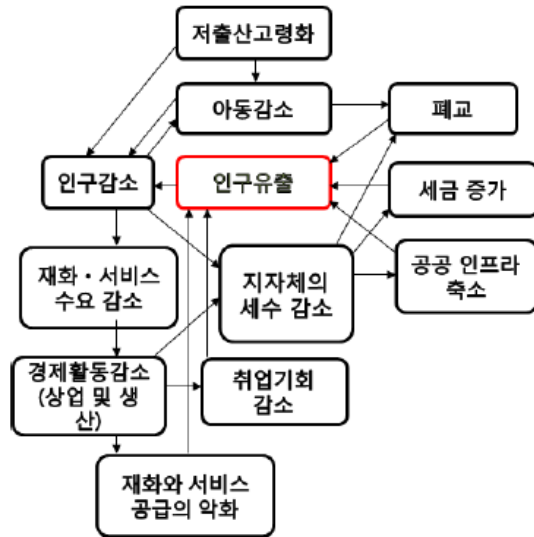
---

## 1. 연구 배경

### 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대두

-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2020년 5,184만 명을 기점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2070년에는 3,766만 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고, 비수도권 20-30대 청년층의 유출 심화로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최예슬, 2022)
  - 비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도시지역에서도 도심 공동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
-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지역의 발전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소멸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지역 경기의 쇠퇴 및 생활환경 악화는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악순환의 관계에 놓임
  - 인구 감소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지역 거주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들어 인구 감소가 다시 심화되는 상황이 야기됨(이상림 외, 2018)

[그림 1-1] 지역 쇠퇴와 인구 감소의 악순환 관계



자료: 이상림 외(2018)

-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고, 인구 이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필요성이 대두됨(김현호 외, 2021)
  -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남 고흥군, 경북 군위군 등 기초 지자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나. 관광 진흥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성 증대

- 각 지역의 인구는 지역의 노동 공급자임과 동시에 지역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자·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경제의 핵심적 요소임(강지수·조장희, 2018)
  - 따라서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및 지역 상품·서비스 수요의 감소는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 인구감소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관심이 증대됨

-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역관광진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차미숙 외, 2016)
  - 지방 정주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수도권 편중, 열악한 의료·건강, 교육 인프라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주인구 증대 혹은 유출 방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방 소멸 문제를 겪은 일본의 경우, 체재·교류인구의 증대를 목표로 관광지역 브랜드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관광진흥’을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차미숙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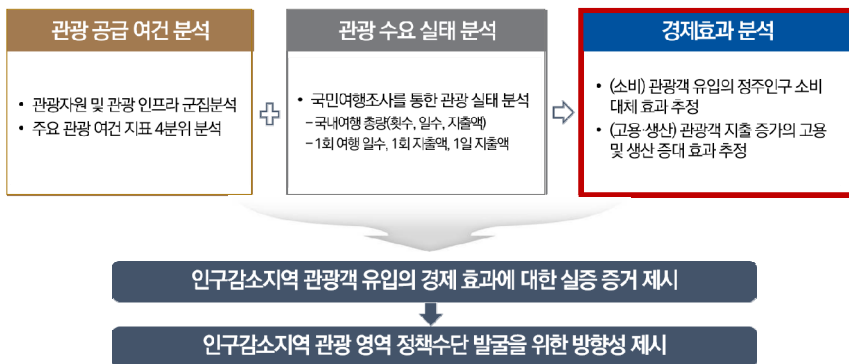
#### 다. 인구감소지역의 효율적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필요

- 각 지역이 관광을 통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해결책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과거에 수행된 국내외 실증연구는 관광이 경제성장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특히 Faber and Gauber(2019)은 지역 관광 수입 증대가 고용 및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제조업에 대한 파급효과(spillover)도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음
  - 국내에서도 강원도 및 제주에 대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관광이 타 산업에 비해서 생산 및 소득 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이강욱·최승묵, 2003)
- 그러나 아직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 설계 단계에서 참고할 기초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임
- 특히 국내연구의 경우 주로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관광객 유입을 통해 실현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에 관한 실증 증거를 제시하는 것임
- 특히 단순한 실증 증거 제시를 넘어 향후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①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분석, ② 관광 수요 실태 분석, ③ 경제효과 분석 등 총 3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관광 공급 여건 분석)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 분석
- (관광 수요 실태 분석)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수요 실태를 비인구감소지역과의 비교,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 공급 여건별 비교를 통해 제시
- (경제효과 분석) 관광객 유입의 정주인구 소비 대체 효과 추정 및 관광객 지출 증가의 고용 및 생산 효과 추정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영역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그림 1-2] 분석 개요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공간적 범위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89개 지역으로 정의함

#### 나. 시간적 범위

- 2019-2021년
  - 인구감소지역 국내관광 현황 분석, 관광객 유입의 정주인구 소비 대체 효과 분석, 관광객 유입의 고용 효과 분석의 기준년도는 2019-2021년임
  - 단, 관광객 유입의 지역 생산 증대 효과의 경우, 분석에 필요한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가 분석 시점 기준 2019년까지만 공표되어 있어 2019년에 대해서만 분석을 실시함

#### 다. 대상적 범위

- 국내 관광객을 대상적 범위로 하며, 외국인 관광객은 제외함

#### 라. 내용적 범위

- 본 과제는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국내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내용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이러

한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 현황 및 관광 여건 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국내관광 현황 분석
-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 인구감소지역 국내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통계자료(국가승인통계 및 민간 빅데이터) 분석, 계량 분석,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연구를 수행함

〈표 1-1〉 연구 수행 방법

구분	내용
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문헌 및 관련자료(보고서, 언론 보도, 논문 등)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 현황과 관광 여건을 분석</li> <li>• 국내외 문헌을 통하여 관광의 경제효과 관련 기존 선행연구를 분석함</li> </ul>
통계 및 계량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여행조사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국민관광 현황을 분석</li> <li>• 민간 빅데이터(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 소비 실태 분석</li> <li>• 관광소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지역내총생산,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한 계량 분석 실시)</li> </ul>
전문가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효과 분석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li> <li>• 인구감소지역 국내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고를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li> </ul>



[그림 1-3] 연구의 구성 및 흐름도

부 문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 배경 및 목적 설정</li> <li>연구 범위 및 방법 제시</li> </ul>	▷ 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
인구감소지역 현황 및 관광 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자원 현황 분석</li> <li>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여건 분석</li> </ul>	▷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인구감소지역의 국내관광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구감소지역의 국내관광 실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여행 총량) 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li> <li>- (관광객 행태) 1회 여행일수, 1회·1일 지출액</li> </ul> </li> </ul>	▷ 통계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광객 유입의 정주인구 소비 대체 효과 분석</li> <li>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생산 및 고용 효과 분석</li> </ul>	▷ 선행연구 검토 ▷ 계량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론</li> <li>인구감소지역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li> </ul>	▷ 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제2장

인구감소지역 현황 및 관광 여건 분석



# 제1절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현황

---

##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가.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의 검토

#### 1)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관련 연구나 법령들에서 그 범위나 정책적인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음
- 기정훈(2011)은 인구감소지역을 우리나라의 시, 군, 자치구별로 15년간의 평균 인구의 증감을 대비 상대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낮은 지역으로 정의함
- 변필성·임상연·김명수(2014)는 인구과소지역에 대하여 “① 심각한 인구감소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 ② 재정력이 취약하거나, 또는 ③ 노년층(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상승하거나 청년층(20~30대) 인구 비율이 낮고 저하되는 지역”이라고 정의함
- 임석희(2018)는 도시 차원의 인구감소를 다루면서 이를 문제로 인식하기 위한 인구감소의 지속 기간은 본원적으로 정답이 있기 어려우며 경험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범위를 찾을 수 있다고 함
  - 일례로 박승규·이제연(2017)은 인구감소지역 추출을 위한 지정기준 설정 관련 대안별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함
- 인구감소지역의 정의에 대하여 인구감소의 범위보다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함
- 박진경 외(2019)는 인구감소지역을 “단순히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정의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인구감소대책이 시급한 지역

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 즉, “저출산·고령화·인구유출 등으로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어 타 지역에 비해 삶의 질 수준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 정의함

- 지역의 활력을 인구(사람)활력, 경제활력, 공간활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가나 레저를 위한 활동지점은 공간활력으로 간주
- 김현호·박진경(2019)은 인구감소 관리지역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인구감소의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주민의 삶의 질 유지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자체의 유지 자체도 우려되어 지역의 인구·경제·공간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함
-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령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음
-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함

## 2) 지방소멸

- 인구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는 지방소멸은 학술적 용어는 아니며 일본창성회의의 의장이었던 마스다 히로야로부터 유래함
  -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출간한 「지방소멸」이란 책에서 2014~2040년 동안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9세의 여성 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여 일본의 시·구·정·촌의 49.8%에 달하는 869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 함
- 마스다 히로야의 소멸대상 지역 명단 제시는 일본의 상당수 지역들로 하여금 인구감소 위험 대비라는 막연함을 넘어 지역의 생존 자체를 걱정하게 하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으며 거의 모든 지역과 주민들이 지방소멸의 이해관계자가 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침(김현호·이제연·김도형, 2021)

-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소멸에 관해 마스다가 사용한 접근 방식과 지표들을 차용 및 변용하여 7가지 분석을 수행한 이상호(2016)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지방소멸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함
  - 특히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을 중심으로 분석
- 정성호(2019)는 지방소멸에 대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사람이 살지 않게 되고, 개별적인 생활 관련 서비스가 유지될 수 없는 인구 규모가 되면 그 지역은 소멸되는 것”으로 봄
  - 지방소멸의 진행은 농촌 마을의 과소화에서 읍·면의 과소화로 이어지고, 시·군 과소화와 소멸로 이어짐
- 그러나 지방소멸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지방소멸은 별도로 정의되고 있지 않으며, 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구형수 외, 2018; 김현호·이제연·김도형, 2021; 이제연·이소영, 2021; 하혜영·김예성, 2021)

#### 나.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8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함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는 2021년 10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함
  - 2020년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2021년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해 8개의 인구감소지수 구성 지표를 선정하고 통계기법 기반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10.18.)

-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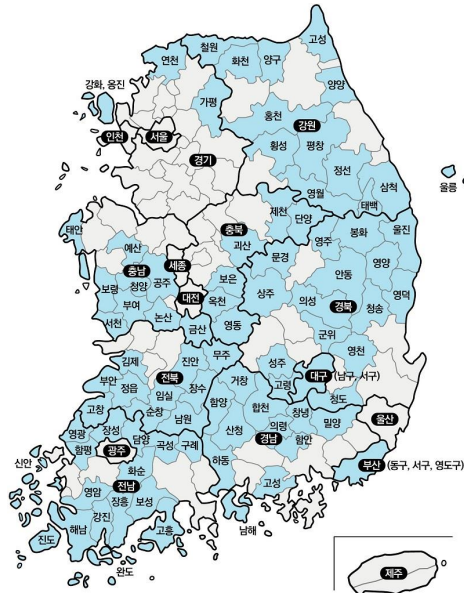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은 다음과 같음

〈표 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구분	인구감소지역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	남구, 서구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그림 2-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인 2023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정을 보완할 계획임

##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현황<sup>1)</sup>

### 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sup>2)</sup>

#### 1) 기금 개요

- 정부는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
- 동 기금은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성격을 띠고 있음
  - 자주재원: 지자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목적재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
-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22년은 7,500억), 총 10조 원 규모로 지원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함
  - 기초자치단체는 투자 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 동 기금의 운영 기본 방향은 목적성 강화, 자율성 제고, 성과 지향으로 제시되고 있음
  - 목적성 강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 자율성 제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 성과 지향: 투자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

1) 동 연구에서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신규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봄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2.8.; 2022.8.16),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

## 2) 기금 투자 대상 사업

- 지자체가 기금에서 교부되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해야 하는 투자 계획의 대상 사업은 생활인프라임
- 즉, 지역 인구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여기서 생활인프라란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말하며,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짐
  - 하드웨어: 정주·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 소프트웨어: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정주민구 증가,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 2022년 최대 규모의 기금을 받은 4개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2-2〉 기금사업 주요 사례

구분	사업 내용
충남 금산	<b>〈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b> - (목적) 산림에서 힐링·치유를 원하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 - (내용) 마을 내 유희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 등 조성, 산림욕 체험 및 유입인구 대상 한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
전남 신안	<b>〈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b> - (목적) 외부 유입인구 대상 교육 및 정착여건 조성 - (내용) 폐교 활용 교육시설 구축, 섬살이 기술 등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태평양 도서국 등 국제협력 강화
경북 의성	<b>〈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b> - (목적) 외식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내용) 푸드코트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 메타버스 기반 홍보·체험관 마련, 메타버스 전문가 육성 등
경남 함양	<b>〈함양 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b> - (목적)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통합 공유체계 구축 - (내용) 유아돌봄센터, 청소년 꿈 공작소, 문화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구축·운영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8.16.),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sup>3)</sup>

### 1) 제정 배경

-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2년 6월에 제정됨(2023.1.1. 시행 예정)
  - 동법 제1조에 따르면,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
-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짐

### 2) 주요 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생활인구 정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먼저 동법에서는 생활인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상기 내용 중 체류하는 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

3)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5.29.; 2022.9.6),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

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하여 체류하는 경우의 사람으로 하되, 빠르게 변화하는 거주·근무 형태(5도2촌, 워케이션 등)를 생활인구로 반영하기 위해 세부 요건을 행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하여 동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상향식 수립: 시·군·구 계획 → 시·도 계획 → 국가 계획
- 또한 동법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관광과 관련하여 제25조(문화기반의 확충) 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예술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제2절 인구감소지역 관광여건 분석

### 1. 분석 개요

- 본 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관점의 국내관광 실태 분석(제3장)과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제4장)에 앞서 관광목적지로서의 공급 여건을 파악해 보고자 함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은 크게 관광자원과 관광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자료의 기준 연도는 2020년임<sup>4)</sup>
-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인 매력 요인으로서 관광자원은 자원의 주제 또는 성격에 기반하여 크게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레저휴양시설자원으로 구분함<sup>5)</sup>
  - 자연생태자원: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자연명승지
  - 역사문화자원: 문화재, 박물관/미술관
  - 레저휴양시설자원: 관광객 이용시설업, 카지노, 유원시설업, 수목원, 식물원, 스키장, 골프장
-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활동 편의 요인으로서 관광인프라는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분석지표들을 구성함<sup>6)</sup>

- 
- 4) 관광 공급 여건 분석에 활용한 지표 체계와 자료는 기본적으로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연구의 관광수용력지수와 관련된 분류 체계와 원자료를 바탕으로 함. 다만, 분석 목적 및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분석지표들은 제외하거나 새로이 추가함
- 5) 관광자원 관련 분석지표에서 축제/이벤트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지자체가 많아 본 분석에서 제외함. 그리고 인공관광자원 중 관광(단)지의 경우 복합적 관광거점으로서 특정 주제나 성격에 의거하여 분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본 분석에서 제외함
- 6) 분석지표들 중 도로포장률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되는 e-지방지표를 그리고 관광 공급 잠재인력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활용함

- 숙박·안내·교통인프라: 관광숙박업<sup>7)</sup>, 관광안내소, 도로포장률<sup>8)</sup>
- 사업·인력인프라: 관광사업체, 관광 공급 잠재인력(총인구, 20~30대 인구)

〈표 2-3〉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분석지표

구분	분석지표	
관광자원	자연생태자원	- 자연공원면적(km <sup>2</sup> ), 자연휴양림면적(km <sup>2</sup> ), 자연명승지면적(km <sup>2</sup> )
	역사문화자원	- 문화재(개), 박물관/미술관(개)
	레저휴양시설자원	- 관광객 이용시설업(개) - 레저휴양시설(카지노, 유원시설, 수목원, 식물원, 스키장, 골프장)(개)
관광인프라	숙박인프라	- 관광숙박업객실수(개)
	안내인프라	- 관광안내소수(개)
	교통인프라	- 도로포장률(%)
	사업인프라	- 관광사업체수(개)
	인력인프라	- 총인구(명), 20~30대 인구 비중(%)

- 본 연구에서는 상기 분석지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 개별 지역별로 접근하기보다는 군집 분석과 4분위수 분석을 실시함
  - 단,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광역시에 속하는 7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초 지자체 단위의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sup>9)</sup>
- 이는 유사한 관광 여건을 갖는 인구감소지역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관광 공급 여건 분석에 있어 유의미하거나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기 위함임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분석을 위한 유형화 접근은 또한 3장의 수요 측면의 국내관광 실태 분석과 4장의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에도 활용
  -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의 차이에 따른 관광수요와 경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7) 숙박인프라 관련 분석지표로서 일반·생활숙박업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관광숙박업만을 대상으로 함

8) 교통인프라 관련 분석지표로서 시티투어버스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운영하지 못한 지자체가 많아 본 분석에서 제외하고 대체 지표로 도로포장률을 포함시켜 분석함

9)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7개 인구감소지역은 대구 남구, 대구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임

## 2. 분석 결과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분석지표 자료에 기반하여 군집 분석과 4분위수 분석을 실시함<sup>10)</sup>

### 가. 군집 분석

-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은 같은 군집 내의 객체들은 서로 높은 유사성을 갖도록 하고, 다른 군집들의 객체와는 높은 상이성을 갖도록 그룹화하는 과정을 의미함 (이양구 외, 2005)
  - 여기서 상이성은 각 객체를 대표하는 속성 값에 기초하여 측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의 관광 여건 분석 지표를 의미함
- 군집 분석에는 계층적 군집 분석, 비계층적 군집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 중 k-평균법(k-means)을 활용함
  - k-평균법의 경우, 비계층적 군집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군집의 수 k를 사전에 지정하고 k개 군집의 중심좌표를 고려하여 각 객체를 가까운 군집에 배정하는 반복적 알고리즘임(전치혁, 2020)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파악을 위한 군집 분석은 크게 관광자원과 관광인프라에 기반하여 실시함

#### 1) 관광자원 기반 군집 분석

- 관광자원 기반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중 자원 여건은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됨
  - 유형 I은 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지역으로, 자연공원면적, 자연휴양림면적, 자연명승지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임
  - 유형 II는 역사문화자원 중심형 지역으로, 자연생태자원은 가장 적으며 역사문

10) 본 연구에서 군집 분석과 4분위수 분석의 결과는 활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화자원인 문화재, 박물관/미술관은 유형 IV 다음으로 많은 특성을 보임

- 유형 III는 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지역으로, 자연공원면적과 자연휴양림면적이 유형 I 다음으로 넓음과 동시에 레저휴양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음
- 유형 IV는 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지역으로, 문화재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음

〈표 2-4〉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군집별 관광지표 평균

구분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자연공원면적(km <sup>2</sup> )	742	16	345	90
자연휴양림면적(km <sup>2</sup> )	28	4	15	15
자연명승지면적(km <sup>2</sup> )	3	0	0	1
문화재(개)	30	46	30	69
박물관·미술관(개)	5	3	3	4
관광객 이용시설업(개)	22	11	18	29
레저휴양시설(개)	4	6	9	8

주1: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주2: 레저휴양시설은 카지노, 유원시설, 수목원, 식물원, 스키장, 골프장 포함

〈표 2-5〉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군집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유형 I (11개)	강원영월군 전남진도군	강원정선군 전북무주군	강원화천군 전북진안군	경북울진군 충북단양군	경북청송군	전남신안군	전남완도군
유형 II (39개)	강원삼척시 경북고령군 경북청도군 전남장성군 전북장수군 충남예산군	경남거창군 경북군위군 전남강진군 전남장흥군 전북정읍시 충남청양군	경남고성군 경북상주시 전남곡성군 전남함평군 충남금산군 충북영동군	경남밀양시 경북성주군 전남담양군 전남해남군 충남논산시 충북옥천군	경남의령군 경북영양군 전남보성군 전북김제시 충남보령시	경남창녕군 경북영천시 전남영광군 전북순창군 충남부여군	경남함안군 경북의성군 전남영암군 전북임실군 충남서천군
유형 III (10개)	강원고성군 전북고창군	강원양구군 전북부안군	강원철원군 충남태안군	강원태백시	강원평창군	경기연천군	경북영덕군
유형 IV (22개)	강원양양군 경남함양군 전남고흥군 충북제천시	강원홍천군 경남합천군 전남구례군	강원횡성군 경북문경시 전남화순군	경기가평군 경북봉화군 전북남원시	경남남해군 경북안동시 충남공주시	경남산청군 경북영주시 충북괴산군	경남하동군 경북울릉군 충북보은군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 2) 관광인프라 기반 군집 분석

- 관광인프라 기반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중 인프라 여건은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됨
  - 유형 I은 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으로, 관광숙박업객실수를 제외한 모든 관광 인프라 지표들에서 가장 적거나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유형 II는 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지역으로, 관광숙박업객실수는 가장 적은 반면 다른 관광인프라 지표들에서는 가장 많거나 높은 특성이 나타남
  - 유형 III는 숙박인프라 중심형 지역으로, 관광숙박업객실수가 가장 많으며 유형 II 다음으로 관광사업체수와 총인구수가 많음
  - 유형 IV는 관광인프라 준취약형 지역으로, 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인 유형 I보다 관광숙박업객실수, 관광안내소수, 관광사업체수, 총인구수가 많음

〈표 2-6〉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프라 군집별 관광지표 평균

구분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관광숙박업객실수(개)	391	213	529	420
관광안내소수(개)	2	5	2	3
관광사업체수(개)	37	102	73	49
도로포장률(%)	88	95	88	88
총인구(명)	26,848	112,908	67,951	45,352
20-30대 인구 비중(%)	16	19	17	16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표 2-7〉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프라 군집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유형 Ⅰ (25개)	강원고성군	강원양구군	강원양양군	강원화천군	경남산청군	경남의령군	경북고령군	
	경북군위군	경북봉화군	경북영양군	경북울릉군	경북청송군	전남강진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진도군	전남함평군	전북무주군	전북순창군	전북임실군	전북장수군	
	전북진안군	충남청양군	충북단양군	충북보은군				
유형 Ⅱ (10개)	경남밀양시	경북상주시	경북안동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전북정읍시	충남공주시	
	충남논산시	충남보령시	충북제천시					
유형 Ⅲ (15개)	강원삼척시	강원홍천군	경기가평군	경남거창군	경남창녕군	경남함안군	경북문경시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전남화순군	전북김제시	전북남원시	충남부여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구분	해당 지역						
유형 IV (32개)	강원영월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태백시	강원평창군	강원횡성군	경기연천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하동군	경남함양군	경남합천군	경북성주군	경북영덕군
	경북울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도군	전남담양군	전남보성군	전남신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영암군	전남완도군	전남장성군	전남장흥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충남금산군
	충남서천군	충북괴산군	충북영동군	충북옥천군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 나. 4분위수 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4분위수 분석을 실시함
-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의 각 하위 유형별로 1~4분위(하위 25%, 하위 25%~중위, 중위~상위 25%, 상위 25%)로 구분하여 살펴봄

### 1) 관광자원

#### ① 자연생태자원

-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생태자원 평균 면적을 4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면적은 6.8km<sup>2</sup>, 상위 25% 4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면적은 593.8km<sup>2</sup>임
- 1~4분위별 자연생태자원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각각 충남 예산군, 경남 합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정선군 지역임

〈표 2-8〉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생태자원 4분위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평균(km <sup>2</sup> )
1분위	강원삼척시 경북의성군 전북임실군 충남예산군	경남밀양시 전남강진군 전북장수군 충북영동군	경남의령군 전남곡성군 충남금산군 충북옥천군	경남함안군 전남영광군 충남논산시	경북고령군 전남장흥군 충남부여군	경북안동시 전남함평군 충남서천군	6.8
2분위	경남거창군 경북성주군 전남장성군 충남보령시	경남고성군 경북영천시 전남해남군 충남청양군	경남창녕군 경북청도군 전북김제시	경남합천군 전남담양군 전북순창군	경북군위군 전남보성군 전북정읍시	경북상주시 전남영암군 충남공주시	35.3

구분	해당 지역						평균(km <sup>2</sup> )
3분위	강원고성군 경남산청군 경북영주시 충북괴산군	강원양양군 경남하동군 경북울릉군 충북보은군	강원홍천군 경남함양군 전남고흥군 충북제천시	강원횡성군 경북문경시 전남구례군	경기가평군 경북봉화군 전남화순군	경남남해군 경북영양군 전북남원시	120.5
4분위	강원양구군 강원화천군 전남완도군 충남태안군	강원영월군 경기연천군 전남진도군 충북단양군	강원정선군 경북영덕군 전북고창군	강원철원군 경북울진군 전북무주군	강원태백시 경북청송군 전북부안군	강원평창군 전남신안군 전북진안군	593.8

주1: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주2: 자연생태자원 면적(자연공원, 자연휴양림, 자연명승지)

## ② 역사문화자원

- 인구감소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평균 개수를 4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19.9개, 상위 25% 4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95.1개임
- 1~4분위별 역사문화자원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1분위에서는 충남 서천군, 경북 영양군, 전남 신안군, 충남 태안군이 공동으로 가장 많음
- 2분위는 경남 함안군, 3분위는 경남 산청군, 4분위는 경북 안동시가 역사문화자원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

〈표 2-9〉 인구감소지역의 역사문화자원 4분위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평균(개)
1분위	강원고성군 강원횡성군 경북울릉군 충남금산군	강원양구군 경기가평군 전남신안군 충남서천군	강원정선군 경기연천군 전남완도군 충남태안군	강원철원군 경북고령군 전남함평군 전북임실군	강원태백시 경북군위군 전북임실군 전북장수군	강원화천군 경북영양군 전북장수군	19.9
2분위	강원삼척시 경북울진군 전남장성군 충남청양군	강원양양군 경북의성군 전남진도군 충북옥천군	강원홍천군 경북청송군 전북무주군	강원의령군 전남곡성군 전북순창군	경남함안군 전남보성군 전북진안군	경북영덕군 전남영광군 충남보령시	35.2
3분위	강원영월군 경북봉화군 전남영암군 충남예산군	강원평창군 경북성주군 전남장흥군 충북괴산군	경남거창군 전남강진군 전남화순군 충북영동군	경남고성군 전남고흥군 전북김제시	경남남해군 전남구례군 전북부안군	경남산청군 전남담양군 충남논산시	58.0
4분위	경남밀양시 경북상주시 전북고창군 충북보은군	경남창녕군 경북안동시 전북남원시 충북제천시	경남하동군 경북영주시 전북정읍시	경남함양군 경북영천시 충남공주시	경남합천군 경북청도군 충남부여군	경북문경시 전남해남군 충북단양군	95.1

주1: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주2: 역사문화자원 개수(문화재, 박물관/미술관)

### ③ 레저휴양시설자원

-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평균 개수를 4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4.0개, 상위 25% 4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46.0개임
- 1~4분위별 관광객 이용시설업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1분위에서는 전남 함평군, 전북 장수군, 경남 의령군, 경북 영덕군, 전남 해남군이 공동으로 가장 많음
- 2분위에서는 강원 고성군, 강원 철원군, 전북 순창군, 경북 울진군, 전북 진안군, 충북 영동군이 공동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개수가 가장 많음
- 3분위는 경북 문경시, 4분위는 경기 가평군이 관광객 이용시설업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

〈표 2-10〉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이용시설업 4분위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평균(개)
1분위	강원태백시 경북울릉군 전남장흥군 전북임실군	경남의령군 경북의성군 전남진도군 전북장수군	경남창녕군 경북청송군 전남함평군 충북옥천군	경남함안군 전남구례군 전남해남군	경북영덕군 전남영암군 전북고창군	경북영양군 전남완도군 전북김제시	4.0
2분위	강원고성군 전남고흥군 전북순창군 충북보은군	강원양구군 전남보성군 전북정읍시 충북영동군	강원철원군 전남신안군 전북진안군	경북군위군 전남영광군 충남금산군	경북울진군 전남화순군 충남부여군	전남강진군 전북부안군 충남청양군	9.0
3분위	강원삼척시 경북고령군 경북영천시 충남보령시	강원화천군 경북문경시 전남곡성군 충남서천군	경남거창군 경북봉화군 전남담양군 충남예산군	경남남해군 경북상주시 전남장성군	경남하동군 경북성주군 전북남원시	경남함양군 경북영주시 충남논산시	15.3
4분위	강원양양군 경기가평군 경북안동시 충북단양군	강원영월군 경기연천군 경북청도군 충북제천시	강원정선군 경남고성군 전북무주군	강원평창군 경남밀양시 충남공주시	강원홍천군 경남산청군 충남태안군	강원횡성군 경남합천군 충북괴산군	46.0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레저휴양시설 평균 개수를 4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1.8개, 상위 25% 4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14.8개임

- 1~4분위별 레저휴양시설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1분위에서는 전북 장수군, 경남 의령군, 충북 옥천군, 전남 진도군, 전남 장흥군, 강원 양구군, 충북 보은군, 경남 함양군, 충북 괴산군이 공동으로 가장 많음
- 2분위에서는 경남 창녕군, 경북 군위군, 전남 담양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북 청도군, 충북 단양군이 공동으로 레저휴양시설 개수가 가장 많음
- 3분위는 전북 김제시, 전북 고창군, 강원 삼척시, 전남 곡성군, 충남 예산군, 경북 영천시, 전북 남원시, 전북 무주군이 공동으로 레저휴양시설 개수가 가장 많음
- 4분위에서 레저휴양시설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가평군 지역임

〈표 2-11〉 인구감소지역의 레저휴양시설 4분위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평균(개)
1분위	강원양구군	강원양양군	강원화천군	경남산청군	경남의령군	경남함안군			1.8
	경남함양군	경북봉화군	경북성주군	경북영덕군	경북영양군	경북울릉군			
	경북울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전남고흥군	전남구례군	전남신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장흥군	전남진도군	전북임실군	전북장수군	전북진안군			
	충남청양군	충북괴산군	충북보은군	충북옥천군					
2분위	강원영월군	경남남해군	경남창녕군	경남하동군	경북군위군	경북상주시			4.5
	경북청도군	전남강진군	전남담양군	전남보성군	전남완도군	전남함평군			
	전북순창군	충북단양군	충북영동군						
3분위	강원고성군	강원삼척시	강원철원군	강원태백시	경남거창군	경남고성군			7.0
	경남합천군	경북고령군	경북문경시	경북영천시	전남곡성군	전남장성군			
	전남해남군	전북고창군	전북김제시	전북남원시	전북무주군	전북부안군			
	충남금산군	충남부여군	충남서천군	충남예산군					
4분위	강원정선군	강원평창군	강원홍천군	강원횡성군	경기가평군	경기연천군			14.8
	경남밀양시	경북안동시	경북영주시	전남영암군	전남화순군	전북정읍시			
	충남공주시	충남논산시	충남보령시	충남태안군	충북제천시				

주1: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주2: 레저휴양시설 개수(카지노, 유원시설, 식물원, 스키장, 골프장)

## 2) 관광인프라

### ① 숙박인프라(관광숙박업)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숙박업객실 평균 개수를 4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2.5개, 상위 25% 4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1,359.5개임

- 1~4분위별 관광숙박업객실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각각 경북 봉화군, 경남 함양군, 경북 울릉군, 강원 평창군 지역임

〈표 2-12〉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숙박업 4분위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평균(개)
1분위	경남의령군 경북의성군 전북임실군 충남청양군	경남함안군 전남함평군 전북장수군 충북괴산군	경북고령군 전북고창군 전북진안군 충북영동군	경북봉화군 전북김제시 충남금산군	경북영양군 전북부안군 충남논산시	경북영천시 전북순창군 충남서천군	2.5
2분위	강원양구군 경남합천군 전남곡성군 충남공주시	강원철원군 경북군위군 전남담양군 충북옥천군	강원화천군 경북상주시 전남신안군	경남거창군 경북성주군 전남영광군	경남고성군 경북영주시 전남장흥군	경남함양군 경북청도군 전북정읍시	50.8
3분위	강원영월군 경북안동시 전남구례군 전남화순군	경기연천군 경북영덕군 전남보성군 충남부여군	경남밀양시 경북울릉군 전남영암군 충북보은군	경남산청군 경북청송군 전남완도군	경남하동군 전남강진군 전남장성군	경북문경시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239.2
4분위	강원고성군 경기가평군 전북무주군	강원정선군 경남남해군 충남보령시	강원태백시 경남창녕군 충남예산군	강원평창군 경북울진군 충남태안군	강원홍천군 전남진도군 충북단양군	강원횡성군 전북남원시 충북제천시	1,359.5

주1: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주2: 관광숙박업객실수 기준

## ② 안내인프라(관광안내소)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안내소 평균 개수를 4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0.7개, 상위 25% 4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6.0개임
- 1분위에 속하는 지역들은 관광안내소가 0~1개이며, 2분위에 속하는 지역들은 2개로 나타남
- 3분위에 속하는 지역들은 관광안내소가 3~4개이며, 4분위에 속하는 지역들은 5개 이상이며 그중 충북 제천시가 관광안내소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

〈표 2-13〉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안내소 4분위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평균(개)
1분위	강원삼척시 경북고령군 경북울진군 전북임실군 충남청양군	경남거창군 경북군위군 전남담양군 전북장수군 충남태안군	경남고성군 경북봉화군 전남영광군 충남금산군 충북보은군	경남산청군 경북성주군 전남장성군 충남논산시 충북영동군	경남의령군 경북영덕군 전남함평군 충남부여군 충북옥천군	경남합안군 경북영천시 전북부안군 충남서천군	0.7
2분위	강원고성군 전남보성군 전북진안군	강원양구군 전남영암군 충남예산군	강원영월군 전남완도군	강원태백시 전남해남군	경남밀양시 전북김제시	경북문경시 전북순창군	2.0
3분위	강원양양군 경북청송군 전북무주군	경남함양군 전남강진군 전북정읍시	경북상주시 전남고흥군	경북영양군 전남곡성군	경북울릉군 전남구례군	경북청도군 전남진도군	3.5
4분위	강원평창군 경북안동시 전북고창군 충북제천시	강원화천군 경북영주시 전북남원시	경기가평군 경북의성군 충남공주시	경기연천군 전남신안군 충남보령시	경남남해군 전남장흥군 충북괴산군	경남합천군 전남화순군 충북단양군	6.0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 ③ 교통인프라(도로포장률)

- 인구감소지역의 도로포장률 평균을 4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은 78.9%, 상위 25% 4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은 97.3%임
- 1~4분위별 도로포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1분위는 경북 의성군, 2분위는 경남 합천군이 가장 높은 지역임
- 3분위는 전북 정읍시, 충북 단양군, 4분위는 전남 장성군, 경북 울릉군이 공동으로 도로포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임

〈표 2-14〉 인구감소지역의 도로포장률 4분위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평균(%)
1분위	강원고성군 경남고성군 경북청송군 전북임실군	강원양양군 경남산청군 전남해남군 전북장수군	강원철원군 경남합안군 전남화순군 전북진안군	강원화천군 경북영양군 전북고창군	강원횡성군 경북의성군 전북김제시	경기연천군 경북청도군 전북부안군	78.9
2분위	강원삼척시 경남함양군 전남신안군 충북영동군	강원양구군 경남합천군 전남진도군 충북옥천군	강원평창군 경북영덕군 전북남원시	경남거창군 경북울진군 전북순창군	경남의령군 전남곡성군 충남태안군	경남하동군 전남보성군 충북괴산군	86.5

구분	해당 지역								평균(%)
3분위	경남남해군 전남강진군 전남함평군 충남예산군	경남창녕군 전남고흥군 전북정읍시 충남청양군	경북문경시 전남구례군 충남금산군 충북단양군	경북성주군 전남담양군 충남논산시 충북보은군	경북안동시 전남영암군 충남부여군	경북영주시 전남장흥군 충남서천군			92.5
4분위	강원영월군 경북고령군 전남영광군 충북제천시	강원정선군 경북구위군 전남완도군	강원태백시 경북봉화군 전남장성군	강원홍천군 경북상주시 전북무주군	경기가평군 경북영천시 충남공주시	경남밀양시 경북울릉군 충남보령시			97.3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 ④ 사업인프라(관광사업체)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사업체 평균 개수를 4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23.5개, 상위 25% 4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 개수는 110.0개임
- 1~4분위별 관광사업체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1분위에서는 충북 영동군과 전남 완도군이 공동으로 가장 많음
- 2분위는 전남 담양군, 3분위는 충남 논산시와 전남 강진군, 그리고 4분위는 경기도 가평군이 관광사업체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

〈표 2-15〉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사업체 4분위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평균(개)
1분위	강원양구군 경북구위군 전남완도군 충남청양군	강원태백시 경북영양군 전남장성군 충북보은군	강원화천군 경북의성군 전북순창군 충북영동군	경남의령군 경북청송군 전북임실군 충북옥천군	경남창녕군 전남신안군 전북장수군	경남함안군 전남영광군 전북진안군			23.5
2분위	강원철원군 경북울진군 전남진도군 충북괴산군	경남고성군 전남고흥군 전남함평군	경남하동군 전남곡성군 전남화순군	경남함양군 전남구례군 전북고창군	경북고령군 전남담양군 전북김제시	경북봉화군 전남장흥군 충남금산군			38.7
3분위	강원고성군 경북문경시 경북청도군 충남서천군	강원삼척시 경북상주시 전남강진군 충남예산군	경기연천군 경북성주군 전남해남군 충북단양군	경남거창군 경북영덕군 전북부안군	경남산청군 경북영천시 충남논산시	경남합천군 경북울릉군 충남부여군			54.9
4분위	강원양양군 경기가평군 전남영암군 충남태안군	강원영월군 경남남해군 전북남원시 충북제천시	강원정선군 경남밀양시 전북무주군	강원평창군 경북안동시 전북정읍시	강원홍천군 경북영주시 충남공주시	강원횡성군 전남보성군 충남보령시			110.0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⑤ 인력인프라(관광 공급 잠재인력)

- 인력인프라로서 관광 공급 잠재인력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지표로서 총인구수와 20-30대 인구 비중을 분석함
-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총인구수 평균을 4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평균 25,585명이며 상위 25% 4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평균 91,921명임
- 1~4분위별 총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각각 경북 봉화군, 전남 장성군, 전남 화순군, 경북 안동시 지역임

〈표 2-16〉 인구감소지역의 총인구수 4분위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평균(명)
1분위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강원양양군	강원화천군	경남의령군	경북고령군	25,585
	경북구미군	경북봉화군	경북영양군	경북울릉군	경북청송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진도군	전북무주군	전북순창군	전북임실군	전북장수군	
	전북진안군	충남청양군	충북단양군				
2분위	강원영월군	강원정선군	강원태백시	강원평창군	경기연천군	경남남해군	39,324
	경남산청군	경남함양군	경북합천군	경북성주군	경북영덕군	경북청도군	
	전남강진군	전남보성군	전남신안군	전남장성군	전남장흥군	전남함평군	
	충북괴산군	충북보은군					
3분위	강원철원군	강원횡성군	경기가평군	경남거창군	경남고성군	경남창녕군	52,791
	경남하동군	경북울진군	경북의성군	전남담양군	전남영광군	전남영암군	
	전남완도군	전남화순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충남금산군	충남서천군	
	충남태안군	충북영동군	충북옥천군				
4분위	강원삼척시	강원홍천군	경남밀양시	경남함안군	경북문경시	경북상주시	91,921
	경북안동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전북김제시	
	전북남원시	전북정읍시	충남공주시	충남논산시	충남보령시	충남부여군	
	충남예산군	충북제천시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20-30대 인구 비중 평균을 4분위별로 살펴보면, 하위 25% 1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은 13.5%, 상위 25% 4분위에 해당하는 지역의 평균은 20.2%임
- 1~4분위별 20-30대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1분위에서는 전남 함평군과 전북 무주군이 공동으로 가장 높음

- 2분위는 경북 성주군과 강원 횡성군, 3분위는 전북 정읍시, 4분위는 강원 화천군이 20-30대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임

〈표 2-17〉 인구감소지역의 20-30대 인구 비중 4분위별 해당 지역

구분	해당 지역						평균(%)
1분위	경남남해군 경북봉화군 전남고흥군 전북진안군	경남산청군 경북영덕군 전남구례군 충남서천군	경남의령군 경북영양군 전남보성군 충북보은군	경남하동군 경북의성군 전남신안군	경남합천군 경북청도군 전남함평군	경북군위군 경북청송군 전북무주군	13.5
2분위	강원평창군 전남강진군 전북순창군 충북괴산군	강원횡성군 전남곡성군 전북임실군 충북단양군	경남고성군 전남완도군 전북장수군	경남함양군 전남장흥군 충남금산군	경북고령군 전남해남군 충남부여군	경북성주군 전북고창군 충남청양군	15.1
3분위	강원양양군 경남창녕군 전남진도군 충남태안군	강원영월군 경남함안군 전북김제시 충북영동군	강원정선군 경북문경시 전북남원시 충북옥천군	강원대백시 경북상주시 전북부안군	경남거창군 경북영주시 전북정읍시	경남밀양시 전남장성군 충남예산군	16.8
4분위	강원고성군 경기가평군 전남담양군 충남보령시	강원삼척시 경기연천군 전남영광군 충북제천시	강원양구군 경북안동시 전남영암군	강원철원군 경북영천시 전남화순군	강원홍천군 경북울릉군 충남공주시	강원화천군 경북울진군 충남논산시	20.2

주: 분석 대상은 82개 인구감소지역(광역시에 속한 7개 구 제외)

## 제3절 소결

---

- 본 장에서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관광 공급 관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여건을 분석함

### 가.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현황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지원을 위한 재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대상 사업인 생활인프라 조성에는 문화·관광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에 정의되어 있는 생활인구에는 관광, 휴양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도 해당됨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타 부처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접근이 요구됨

### 나. 인구감소지역 관광 여건 분석

- 관광목적지로서 인구감소지역의 공급 여건을 크게 관광자원과 관광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분석은 개별 지역 단위 접근이 아니라 군집 분석과 4분위수 분석을 실시하여 유사한 관광 여건을 갖는 지역들을 유형화하여 살펴봄
-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관련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역사문화자원 중심형, 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역사문화

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등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별 4분위수 분석에 따르면,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레저휴양시설자원 모두 면적이나 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프라 기반 군집 분석 결과, 유형별로 관광인프라의 취약 분야나 취약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인프라별 4분위수 분석에서도 또한 개별 관광인프라의 개수나 비중이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여건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나 관광 공급 차원의 내부 여건은 다양하며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적 관점에서 각 지역의 관광 여건을 진단하고 특성과 잠재력을 파악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장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 분석을 위한 유형화 접근은 3장의 수요 측면의 국내관광 현황 분석과 4장의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에도 활용함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여건의 차이에 따른 관광수요와 경제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제3장

인구감소지역의  
국내관광 현황 분석



## 제1절 인구감소지역 국내관광 현황

### 1. 분석 개요

-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 실태에 관한 국가승인통계인 <국민여행조사>를 이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국민 국내관광 현황을 분석함
  - 인구감소지역의 국민 국내관광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여행 총량(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 관광객의 행태적 특성(1회 여행 일수, 1회 지출액, 1일 지출액 등)을 파악하여, 경제효과 분석 진행에 앞서 기초적인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정책적 개선 필요 영역 등을 파악함
- 국내여행은 여행 유형(관광여행, 기타여행)별로 구분하여 살펴봄
  - 관광여행은 자연감상, 박물관 방문, 신혼여행 등 관광·휴양 활동 목적 방문을 말하며, 기타여행은 가족·친척·친지 방문, 출장·업무 방문을 의미함(문화체육관광부, 2020)<sup>11)</sup>
- 특히 본 과제에서는 국민여행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군구별 여행 실태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1) 인구감소지역 및 비인구감소지역 간 비교, 2) 인구감소지역 내 군집 간 비교, 3)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기초 자료를 생산함
  - (지역 간 비교) 각 인구감소지역에 특화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시계열 비교) 3개년(2019-2021년)간 시계열 비교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여행 실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11) 단 기타여행 목적으로 행정구역상 거주지를 벗어났어도 여행 방문지에서 관광·휴양 활동을 병행했다면 관광여행으로 분류함(문화체육관광부,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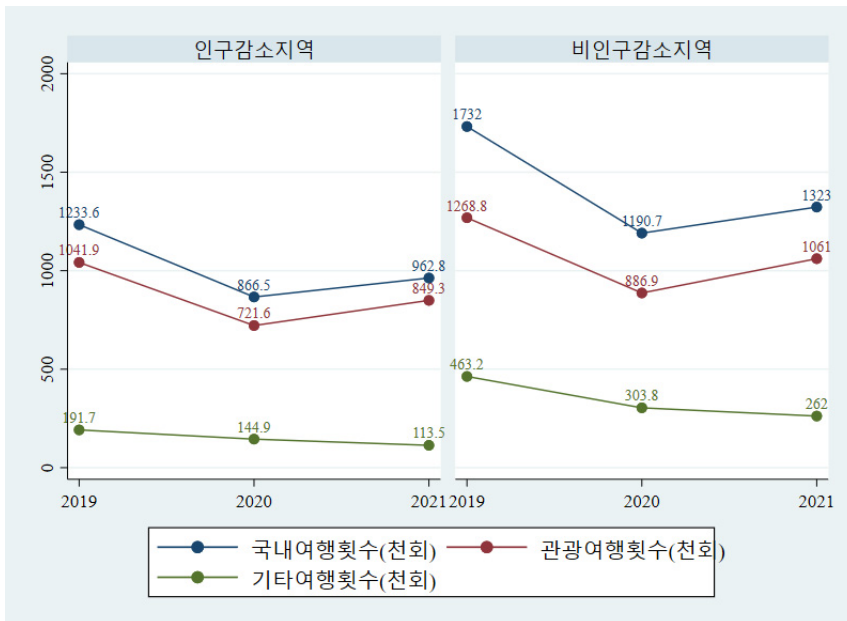
## 2. 분석 결과

### 가. 국내여행 횟수

#### 1)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비교

-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국민 국내여행 횟수는 2019년에는 지역당 평균 1,234천 회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866.5천 회로 크게 감소하였음
  - 2021년에는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인하여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866.5천회에서 962.8천 회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음
-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국민 국내여행 횟수는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은 것(평균 1,732천 회)으로 나타남
  - 관광여행 및 기타여행 횟수도 비인구감소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비인구감소지역 국민여행 횟수 또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1,191천 회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다시 1,323천 회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음

[그림 3-1] 국내여행 횟수(2019-2021)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2019년 기준 전체 국민여행 횟수 중 관광여행 횟수가 84.5%로 대부분을 차지함
- 비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 국민여행 횟수 중 관광여행 횟수가 69.5%로 기타여행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지만 인구감소지역(84.5%)에 비해서는 관광여행 비중이 적음
  - 비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출장 등 업무 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 있음

## 2) 인구감소지역 지역 군집별 비교

### ① 관광자원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여행 횟수 평균은 유형Ⅳ(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Ⅲ(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Ⅰ(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유형Ⅱ(역사문화자원 중심형) 순으로 나타남
  - 관광여행 횟수 평균 또한 유형Ⅳ(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Ⅲ(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Ⅰ(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유형Ⅱ(역사문화자원 중심형)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자연생태자원 혹은 역사문화자원으로 편중된 지역보다는 자연과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지역의 관광객 수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경향을 보여줌 → 유형Ⅲ(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는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자연명승지 등의 면적이 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지역에 비해서는 작지만 유형Ⅱ와 유형Ⅳ에 비해서는 훨씬 크고, 또한 레저시설이 유형Ⅰ에 비해 잘 갖춰진 특징을 가짐
- 2019-2021년 기간별로 보면, 유형Ⅰ을 제외하면 2019-2020년 기간에는 국내여행 횟수가 감소하지만, 2020-2021년 기간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유형Ⅰ의 경우, 2019-2020년 기간에 국내여행 횟수가 크게 줄어든 데에 이어, 2021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함
  - 유형Ⅰ은 자연생태자원이 뛰어나지만, 레저시설이 모든 유형 중 가장 열악한 특징을 가졌고, 2021년에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되거나

폐쇄된 사례 또한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표 3-1〉 관광자원 군집별 국내여행 횟수(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천 회)	관광여행(천 회)	기타여행(천 회)
유형 I (자연생태자원 중심형)	2019	1209.1	1100.5	108.6
	2020	774.9	711.2	63.7
	2021	718.5	657.6	60.9
유형 II (역사문화자원 중심형)	2019	985.4	775.8	209.6
	2020	732.2	563.6	168.6
	2021	792.8	652.1	140.6
유형 III (자연생태자원 ·레저휴양시설 자원 혼합형)	2019	1508.4	1361.7	146.8
	2020	994.9	886.9	107.9
	2021	1266	1176.9	89.1
유형 IV (역사문화자원· 레저휴양시설 자원 혼합형)	2019	1587.6	1366.7	220.9
	2020	1127.4	954.2	173.2
	2021	1279.3	1159.4	120

주: 위의 수치는 각 유형에 속하는 시군구당 평균 국내여행 횟수를 의미함

## ② 관광인프라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여행 횟수 평균은 유형II(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지역), 유형III(숙박인프라 중심형 지역), 유형IV(관광인프라 준취약 지역), 유형 I(관광인프라 취약 지역) 순으로 나타남
  - 관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지역의 총 여행 횟수가 많음
- 관광여행 횟수의 경우, 유형III(숙박인프라 중심형 지역), 유형II(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지역), 유형IV(관광인프라 준취약 지역), 유형 I(관광인프라 취약 지역) 순으로 나타남<sup>12)</sup>
  - 관광여행의 경우, 관광 횟수 결정에 있어 숙박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 2019-2021년 기간별로 보면, 모든 유형의 지역에서 2019-2020년 기간에는 국내여행 횟수가 감소하지만, 2020-2021년 기간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12) 관광숙박업객실수에 따라 4분위에 따라 구분해봤을 때도, 관광숙박업객실수가 많을수록 국내여행 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 일수 및 지출액도 관광숙박업객실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 숙박인프라가 국내여행 총량 지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관광인프라 군집별 국내여행 횟수(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천 회)	관광여행(천 회)	기타여행(천 회)
유형 I (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	2019	791.9	674.7	117.1
	2020	591.1	496.3	94.9
	2021	630.1	553.7	76.4
유형 II (안내·교통·사 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1864.8	1479.4	385.4
	2020	1257.3	982.6	274.7
	2021	1344.2	1149.6	194.6
유형 III (숙박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1737.6	1507.1	230.5
	2020	1233.3	1055.3	178
	2021	1349.2	1193.1	156.2
유형 IV (관광인프라 준취약형 지역)	2019	1163.6	993	170.5
	2020	812	675.1	136.8
	2021	943.6	834.6	109

주: 위의 수치는 각 유형에 속하는 시군구당 평균 국내여행 횟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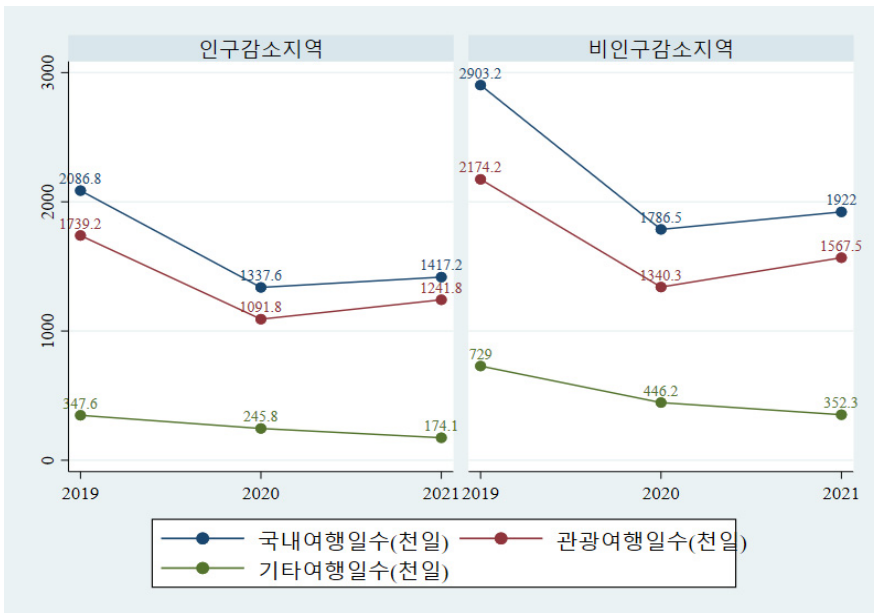
## 나. 국내여행 일수

### 1)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비교

-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국내여행 일수는 2019년에는 평균 2,087천 일이었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1,338천 일로 크게 감소하였음
  - 관광여행 일수는 2020년 크게 감소하였다 2021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타여행 일수의 경우 2021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기타여행이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시 소요 시간 및 경로를 최소화하고 명절 등 가족 방문 시에도 만남 및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비인구감소지역으로의 국민 국내여행 일수는 2019년에는 평균 2,903천 일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국민 국내여행 일수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인구감소지역에서도 전체 국내여행 일수와 관광 여행 일수는 2020년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21년에 회복되었고, 기타 여행 일수는 2021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인구감소지역에서 2019년 기준 전체 국내여행 일수 중 관광여행 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비인구감소지역에서는 전체 국내여행 일수 중 관광여행 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인구감소지역에 비해서는 관광여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게 나타남

[그림 3-2] 국내여행 일수(2019-2021)



## 2) 인구감소지역 지역 군집별 현황

### ① 관광자원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여행 일수 평균은 유형Ⅲ(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Ⅳ(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Ⅰ(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유형Ⅱ(역사문화자원 중심형) 순으로 나타남
- 2019-2021년 기간별로 보면, 유형Ⅰ을 제외하면 2019-2020년 기간에는 국내여행 일수가 감소하지만, 2020-2021년 기간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유형Ⅰ의 경우, 2019-2020년 기간에 국내여행 일수가 크게 줄어든 데에 이어, 2021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함→국내여행 횟수 변화 양상과 유사함

〈표 3-3〉 관광자원 군집별 국내여행 일수(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천 일)	관광여행(천 일)	기타여행(천 일)
유형 I (자연생태자원 중심형)	2019	2164.9	1949.5	215.4
	2020	1306.4	1194.9	111.6
	2021	1147.8	1055.5	91.4
유형 II (역사문화자원 중심형)	2019	1592.8	1206.5	386.3
	2020	1084.6	804.3	280.3
	2021	1108.4	890.8	216.7
유형 III (자연생태자원 · 레저휴양시설 자원 혼합형)	2019	2725.4	2474.6	250.8
	2020	1585.9	1387.1	198.7
	2021	2003.8	1874.2	126.6
유형 IV (역사문화자원· 레저휴양시설자 원 혼합형)	2019	2686.4	2296.1	390.3
	2020	1769	1463.6	305.4
	2021	1918.3	1726.8	190.1

주: 위의 수치는 각 유형에 속하는 시군구당 평균 국내여행 일수를 의미함

## ② 관광인프라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국내여행 일수 평균은 유형II(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유형III(숙박인프라 중심형 지역), 유형IV(관광인프라 준 취약 지역), 유형 I (관광인프라 취약 지역) 순으로 나타남
  - 관광 일수 또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9-2021년 기간별로 보면, 모든 유형의 지역에서 2019-2020년 기간에는 국내여행 일수가 감소하지만, 2020-2021년 기간에는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표 3-4〉 관광인프라 군집별 국내여행 일수(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천 일)	관광여행(천 일)	기타여행(천 일)
유형 I (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	2019	1348.4	1148.7	199.7
	2020	939.6	780.6	159
	2021	969.8	843.8	124
유형 II (안내·교통·사 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3044.4	2323.7	720.7
	2020	1916	1428.8	487.2
	2021	1962.1	1637.8	324.3
유형 III (숙박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2967	2545.8	421.1
	2020	1949.8	1626.3	323.4
	2021	2013.4	1778.8	231.7
유형 IV (관광인프라 준취약형 지역)	2019	1988.4	1675.5	312.9
	2020	1236	1012	224
	2021	1375.7	1216.5	1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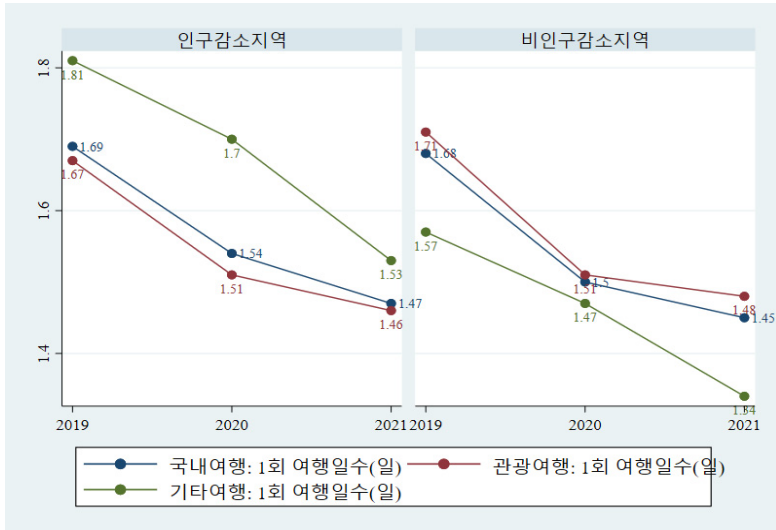
주: 위의 수치는 각 유형에 속하는 시군구당 평균 국내여행 일수를 의미함

## 다. 국내여행 1회 여행 일수

### 1)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비교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국내여행 1회 여행 일수는 2019년 기준으로는 평균 1.69일, 2020년에는 1.54일 그리고 2021년에는 1.47일로 점차 감소하였음
  - 여행 유형별로는 2019년 기준 기타여행의 1회 여행 일수가 1.81일로 관광여행 (1.67일)보다 약 0.14일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관광여행과 기타여행 모두 1회 여행 일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하여 당일여행 또는 단기여행을 선호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그림 3-3] 인구감소지역 1회 여행 일수(2019-2021)



- 비인구감소지역에서의 국내여행 1회 여행 일수는 2019년 기준으로는 1.68일로 인구감소지역(1.69일)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여행 유형별로는 2019년 기준 관광여행의 1회 여행 일수가 1.71일로 기타여행(1.57일)보다 약 0.14일 더 긴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여행보다 기타여행의 1회 여행일수가 더 긴 것과는 대조적임
  - 이는 인구감소지역에 방문할 때는 관광 목적보다는 필수 목적(가족방문, 업무상 출장)으로 가는 경우에 더 긴 시간을 여행하는 것과 달리, 비인구감소지역에는 관광 목적으로 가는 경우 더 긴 시간을 여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비인구감소지역에서도 연도별로는 2019년 1.68일, 2020년 1.5일, 2021년 1.45일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인구감소지역과 유사하게 당일여행이나 단기여행 위주의 여행 선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2) 인구감소지역 지역 군집별 비교

### ① 관광자원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1회 여행 일수는 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인 유형Ⅲ과 자연생태자원 중심형인 유형Ⅰ이 1.79~1.81일로 유형Ⅱ(역사문화자원 중심형) 및 유형Ⅳ(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연생태자원 중심형에서는 휴양을 목적으로 한 숙박여행, 역사문화자원 및 레저휴양시설자원 중심형에서는 당일 체험 여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2019-2021년 기간별로 보면, 지역 유형과는 관계없이 코로나19 이후 1회 여행 일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표 3-5〉 관광자원 군집별 1회 여행 일수(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일)	관광여행(일)	기타여행(일)
유형 Ⅰ (자연생태자원 중심형)	2019	1.79	1.77	1.98
	2020	1.69	1.68	1.75
	2021	1.6	1.61	1.5
유형 Ⅱ (역사문화자원 중심형)	2019	1.62	1.56	1.84
	2020	1.48	1.43	1.66
	2021	1.4	1.37	1.54
유형 Ⅲ (자연생태자원 ·레저휴양시설 자원 혼합형)	2019	1.81	1.82	1.71
	2020	1.59	1.56	1.84
	2021	1.58	1.59	1.42
유형 Ⅳ (역사문화자원· 레저휴양시설자 원 혼합형)	2019	1.69	1.68	1.77
	2020	1.57	1.53	1.76
	2021	1.5	1.49	1.58

### ② 관광인프라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1회 여행 일수는 유형Ⅱ(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에서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군집 유형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9-2021년 기간별로 보면, 지역 유형과는 관계없이 코로나19 이후 1회 여행 일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표 3-6〉 관광인프라 군집별 1회 여행 일수(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일)	관광여행(일)	기타여행(일)
유형 I (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	2019	1.7	1.7	1.71
	2020	1.59	1.57	1.68
	2021	1.54	1.52	1.62
유형 II (안내·교통·사 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1.63	1.57	1.87
	2020	1.52	1.45	1.77
	2021	1.46	1.42	1.67
유형 III (숙박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1.71	1.69	1.83
	2020	1.58	1.54	1.82
	2021	1.49	1.49	1.48
유형 IV (관광인프라 준취약형 지역)	2019	1.71	1.69	1.83
	2020	1.52	1.5	1.64
	2021	1.46	1.46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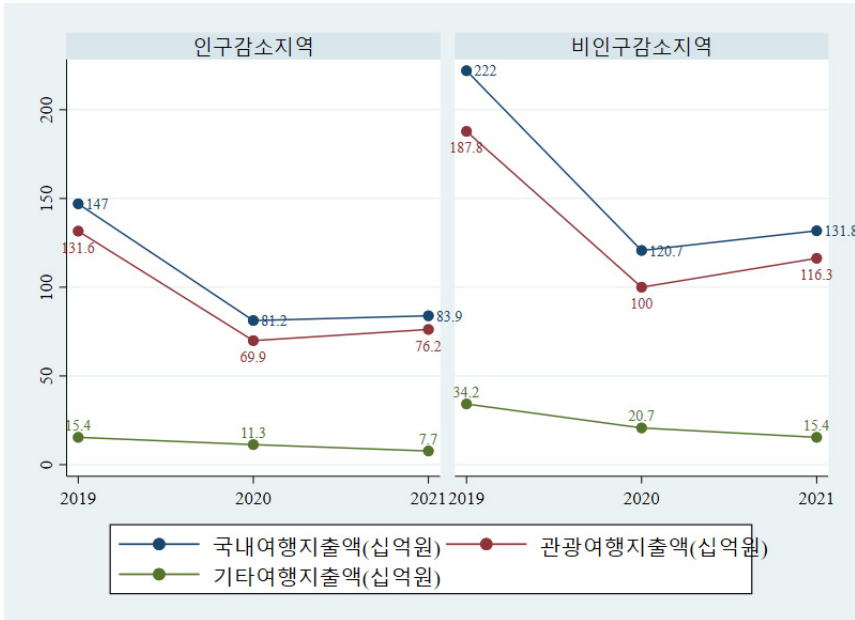
## 라. 국내여행 지출액

### 1)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비교

- 인구감소지역의 국내여행 총 지출액<sup>13)</sup>은 2019년 기준 시군구당 평균 1,470억 원이며, 2020년에는 812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839억 원으로 회복함
- 관광여행 총 지출액은 2019년 기준 평균 1,316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69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함
  - 2021년에는 평균 762억 원으로 소폭 상승함
- 기타여행 총 지출액은 2019년 154억 원이었으나 2020년 113억 원으로 감소함
  - 팬데믹의 영향이 있지만, 관광여행 총 지출액의 감소율보다는 훨씬 적은 감소를 보임
  - 다만 관광여행 지출액이 2021년 소폭 회복된 것과는 달리 기타여행 지출액은 2021년에도 감소함 → 기타여행 횟수 및 일수가 모두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13) 총 지출액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 1인의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총 지출액이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지출한 금액 외에도 여행 준비 과정 및 귀가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도 모두 포함됨

[그림 3-4] 국내여행 총 지출액(2019-2021)



- 비인구감소지역 시군구당 평균 국내여행 총 지출액은 인구감소지역보다 높게 나타남
  - 관광여행 총 지출액 및 기타여행 총 지출액 또한 비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지역보다 모든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비인구감소지역이 평균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비해서 지역 관광시장 규모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비인구감소지역 또한 인구감소지역과 마찬가지로 국내여행 총 지출액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감소하고, 2021년에는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2) 인구감소지역 군집별 비교

### ① 관광자원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평균 국내여행 총 지출액은 유형Ⅲ(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 자원 혼합형 지역), 유형Ⅳ(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Ⅰ(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유형Ⅱ(역사문화자원 중심형) 순으로 나타남

- 2019-2021년 기간별로 보면, 유형Ⅲ과 유형Ⅳ는 2019-2020년 기간에는 총 지출액이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다소 회복한 반면, 유형Ⅰ과 유형Ⅱ는 2021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7〉 관광자원 군집별 국내여행 총 지출액(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십억 원)	관광여행(십억 원)	기타여행(십억 원)
유형 Ⅰ (자연생태자원 중심형)	2019	175.3	165	10.2
	2020	86.8	80.6	6.2
	2021	71.7	67.9	3.8
유형 Ⅱ (역사문화자원 중심형)	2019	102.2	86.2	16
	2020	60.6	48.4	12.2
	2021	58.7	48.7	10
유형 Ⅲ (자연생태자원 ·레저휴양시설 자원 혼합형)	2019	198	186.7	11.3
	2020	101.3	93.5	7.8
	2021	131.8	126.6	5.3
유형 Ⅳ (역사문화자원· 레저휴양시설자 원 혼합형)	2019	193.3	175.5	17.7
	2020	110.7	95.9	14.8
	2021	116.3	108.5	7.8

주: 위의 수치는 각 유형에 속하는 시군구당 평균 관광객 총 지출액을 의미함

## ② 관광인프라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평균 관광객 총 지출액은 유형Ⅲ(숙박인프라 중심형), 유형Ⅱ(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유형Ⅳ(관광인프라 준취약형 지역), 유형Ⅰ(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지역에서 2019-2020년 기간에 국내여행 총 지출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2020-2021년 기간에는 숙박인프라 중심 지역과 관광인프라 준취약 지역에서 지출액이 다소 회복됨

〈표 3-8〉 관광인프라 군집별 국내여행 총 지출액(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십억 원)	관광여행(십억 원)	기타여행(십억 원)
유형 I (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	2019	97.4	88.9	8.6
	2020	60.4	52.8	7.5
	2021	59.9	54.7	5.2
유형 II (안내·교통·사 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203.3	172	31.3
	2020	107.1	85	22.1
	2021	105	90.7	14.4
유형 III (숙박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206.4	187.2	19.3
	2020	123.5	108.2	15.3
	2021	126.8	115.8	11
유형 IV (관광인프라 준취약형 지역)	2019	143.2	129.9	13.3
	2020	73	63.3	9.7
	2021	78.3	71.5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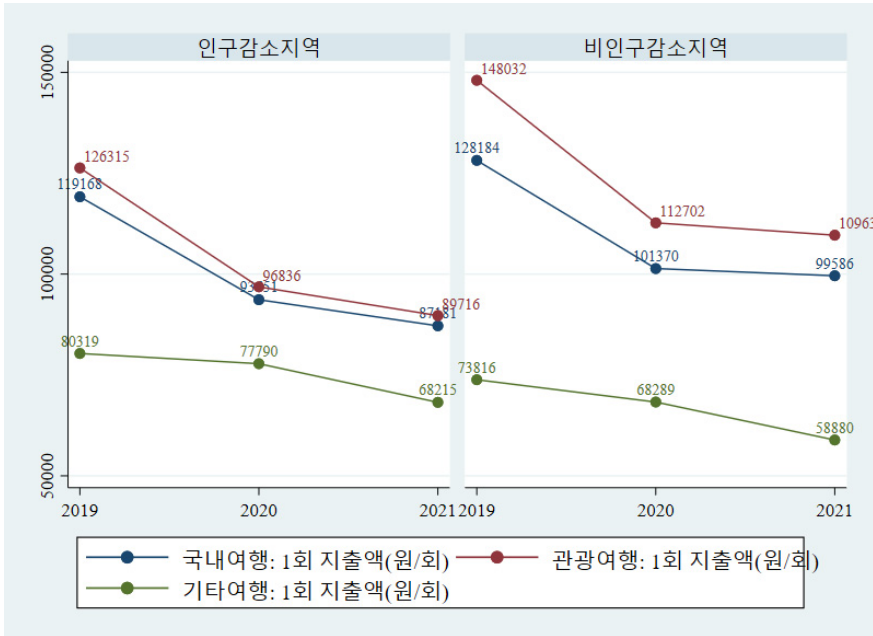
주: 위의 수치는 각 유형에 속하는 시군구당 평균 관광객 총 지출액을 의미함

## 마. 국내여행 1회 지출액

### 1)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비교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국내여행 1회 지출액은 2019년 기준 평균 119,168원이며, 관광여행의 1회 지출액이 기타여행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 관광여행의 경우, 2019-2020년 기간 팬데믹의 영향으로 1회당 여행 지출액이 약 3만 원 가량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도 전년 대비 7,000원 가까이 감소함
- 반면 인구감소지역 기타여행의 경우 2020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으나(약 2,500원),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함
  - 코로나19 직후에는 친지방문 및 출장여행 등 필수 목적 여행에서 여행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으나, 2021년에는 1회 여행일수 및 1일 지출액에서의 변화가 발생하며 1회당 지출액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3-5] 국내여행 1회 지출액(2019-2021)



- 비인구감소지역에서의 국내여행 1회당 지출액은 2019년 기준 128,184원이며, 관광여행은 148,032원, 기타여행은 73,816원으로 관광여행은 인구감소지역보다 높고, 기타여행은 인구감소지역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인구감소지역 관광여행의 경우, 2019-2020년 기간 팬데믹의 영향으로 1회당 여행 지출액이 23.9% 가량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7%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함
- 비인구감소지역 기타여행의 경우 2020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서 약 7.5%,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8% 감소함
  - 인구감소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광여행 지출은 2019-2020년 더욱 크게 영향을 받은 반면, 기타여행 지출은 코로나19 직후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다가 코로나19 2년차에 더욱 크게 감소함

## 2) 인구감소지역 군집별 비교

### ① 관광자원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1회 여행당 지출액 평균은 유형 I(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유형III(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IV(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II(역사문화자원 중심형) 순으로 나타남
- 2019-2021년 기간별로 보면, 유형III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9〉 관광자원 군집별 1회 여행당 지출액(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원/회)	관광여행(원/회)	기타여행(원/회)
유형 I (자연생태자원 중심형)	2019	144,971	149,968	94,319
	2020	112,041	113,374	97,149
	2021	99,838	103,240	63,078
유형 II (역사문화자원 중심형)	2019	103,731	111,116	76,395
	2020	82,726	85,835	72,335
	2021	74,033	74,694	70,966
유형 III (자연생태자원 ·레저휴양시설 자원 혼합형)	2019	131,273	137,094	77,276
	2020	101,823	105,382	72,571
	2021	104,143	107,565	58,940
유형 IV (역사문화자원· 레저휴양시설자 원 혼합형)	2019	121,735	128,441	80,240
	2020	98,204	100,521	85,439
	2021	90,890	93,596	64,743

### ② 관광인프라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1회 여행당 지출액은 오히려 관광인프라 취약 지역(유형 I, 유형IV)의 1회당 지출액이 관광인프라 중심 지역(유형II, 유형III)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인프라 중심형 지역은 관광인프라 취약 지역에 비해 총 국내여행 횟수 및 총 지출액 규모 모두 크지만, 여행당 단가가 반드시 높지는 않음을 보여줌
- 다만 관광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1회 여행당 지출액이 더 큰 것은 해석상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을 경우, 1)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관광지 주변 상점 및 숙박시설의 물가가 크게 오르거나, 2) 대중교통 미비로 택시, 렌터카 등의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동 비용이 비싸지는 등 부정적 요인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
- 인프라의 미비로 관광객들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얻기 위해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의 해당 지역 여행 기피로 이어질 수도 있음

〈표 3-10〉 관광인프라 군집별 1회 여행당 지출액(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원/회)	관광여행(원/회)	기타여행(원/회)
유형 I (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	2019	123,025	131,684	73,137
	2020	102,115	106,457	79,404
	2021	95,121	98,801	68,432
유형 II (안내·교통·사 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109,017	116,283	81,121
	2020	85,167	86,501	80,393
	2021	78,123	78,863	73,753
유형 III (숙박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118,814	124,213	83,517
	2020	100,111	102,485	86,036
	2021	93,968	97,054	70,393
유형 IV (관광인프라 준취약형 지역)	2019	123,045	130,801	77,876
	2020	89,844	93,759	70,527
	2021	82,942	85,691	61,884

## 바. 국내여행 1일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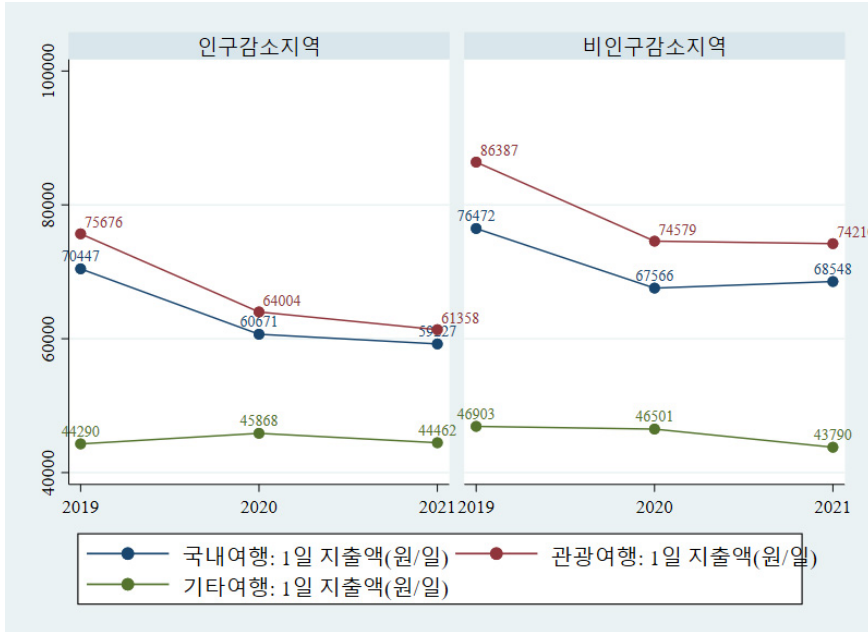
### 1)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비교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국내여행 1일 지출액은 2019년 기준 70,447원이며, 관광여행은 75,676원, 기타여행은 44,290원으로 나타나, 관광여행의 1일 지출액이 기타여행에 비해서 3만 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여행의 경우, 2019-2020년 기간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일 여행 지출액이 1만 원 이상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도 전년 대비 3천 원 가량으로 비교적 소폭 감소함
- 기타여행의 경우 2020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서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으나(약

2천 원),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천 원 가량 감소함

- 다만 체류 일수당 지출액 변동이 44,000원~46,000원 이내에서 이루어져, 필수 목적의 여행에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행지에서의 지출 패턴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3-6] 국내여행 1일 지출액(2019-2021)



- 비인구감소지역에서의 국내여행 1일 지출액은 2019년 기준 평균 76,472원이며, 관광여행은 86,387원, 기타여행은 46,903원으로 나타나, 관광여행의 일일 지출액이 기타여행에 비해서 4만 원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하면, 여행 유형과 관계없이 비인구감소지역에서의 체류 일수당 지출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타여행 지출액만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약간 높음
- 비인구감소지역 관광여행의 경우, 2019-2020년 기간 팬데믹의 영향으로 체류 일수당 여행 지출액이 13.7%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음



- 반면 비인구감소지역 기타여행의 경우 2019~2020년 기간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2021년에도 3천 원 가량 감소하는 데에 그쳐 변동 폭이 크지 않았음
  - 비인구감소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마찬가지로 기타여행의 지출 패턴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시사함

## 2) 인구감소지역 군집별 비교

### ① 관광자원 군집별 비교

- 2019년 기준으로 1일 지출액은 여행 1회당 지출액과 마찬가지로 유형 I(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유형III(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IV(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유형II(역사문화자원 중심형) 순임
- 1일 지출액 또한 2019~2021년 기간별로 보면, 유형III를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1〉 관광자원 군집별 1일 지출액(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원/일)	관광여행(원/일)	기타여행(원/일)
유형 I (자연생태자원 중심형)	2019	80,964	84,659	47,530
	2020	66,457	67,485	55,444
	2021	62,494	64,324	41,996
유형 II (역사문화자원 중심형)	2019	64,172	71,448	41,449
	2020	55,850	60,145	43,525
	2021	52,952	54,681	46,048
유형 III (자연생태자원 ·레저휴양시설 자원 혼합형)	2019	72,657	75,436	45,229
	2020	63,876	67,382	39,407
	2021	65,798	67,545	41,489
유형 IV (역사문화자원· 레저휴양시설자 원 혼합형)	2019	71,945	76,454	45,418
	2020	62,587	65,537	48,451
	2021	60,617	62,838	40,870

### ② 관광인프라 군집별 비교

- 1회 지출액과 마찬가지로 1일 지출액 또한 관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관광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지역(유형Ⅱ, 유형Ⅲ)이 관광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유형Ⅰ, 유형Ⅳ)에 비해 총 여행 일수 및 총 지출액 규모 모두 크지만, 여행 단가 자체는 높지 않음

〈표 3-12〉 관광인프라 군집별 1일 지출액(2019-2021)

구분	연도	국내여행(원/일)	관광여행(원/일)	기타여행(원/일)
유형 Ⅰ (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	2019	72,249	77,352	42,892
	2020	64,245	67,679	47,385
	2021	61,799	64,833	42,129
유형 Ⅱ (안내·교통·사 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66,776	74,033	43,377
	2020	55,885	59,484	45,330
	2021	53,519	55,354	44,253
유형 Ⅲ (숙박인프라 중심형 지역)	2019	69,582	73,531	45,711
	2020	63,323	66,501	47,342
	2021	62,970	65,097	47,442
유형 Ⅳ (관광인프라 준취약형 지역)	2019	72,002	77,522	42,442
	2020	59,023	62,549	43,091
	2021	56,886	58,787	42,436

## 제2절 소결

- 3장에서는 국민여행조사 2019-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국내관광 현황을 국내여행 총량 지표(여행 횟수, 여행 일수, 여행 지출액) 및 국내여행 행태 관련 지표(1회 여행 일수, 1회 지출액, 1일 지출액)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 여행 총량 및 여행 행태는 1)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과의 비교, 2)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자원·관광인프라 군집 간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봄
  - (비인구감소지역과의 비교) 인구감소지역의 여행 총량 및 행태를 비인구감소지역과 비교해 분석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관광 정책이 일반적인 관광 정책과 비교해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를 분석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내 비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국내여행 총량 및 행태 측면에서는 지역 간에 상이한 특성을 가질 수 있어, 세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시사점을 모색해볼 수 있음

### 가. 국내여행 총량

- 인구감소지역은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서 국민여행 횟수, 일수, 총 지출액 모두 평균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의 국내여행 총량, 즉 관광시장 규모가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서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서 관광자원이 풍부하지 않거나, 관광 여건(숙박, 교통 등)이 풍부하지 않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은 이유를 관광 자원 및 관광 여건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존재함

- 관광자원 군집별로 보면, 다양한 특성의 자원이 혼합된(자연생태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역사문화자원·레저휴양시설자원 혼합형)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역사문화자원 중심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행 총량이 높음
- 관광인프라 군집별로 보면,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지역(숙박인프라 중심형, 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여행 총량이 높음
  -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인프라 수준에 따라 관광시장 활성화 정도에 차이 존재

## 나. 국내여행 행태

- 국내여행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에서의 1회 여행 일수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관광여행을 기준으로 보면 비인구감소지역에서의 1회 여행 일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1회 지출액, 1일 지출액으로 대변되는 여행 단가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자원 군집별로는 1회 여행 일수의 경우, 자연생태자원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지역에서 그 외 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고, 1회 및 1일 지출액의 경우 관광자원 군집에 따라 뚜렷한 특성을 보이지는 않았음
- 관광인프라 군집별로는 1회 여행 일수의 경우는 군집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1회·1일 지출액의 경우 인프라가 열악한 유형에 속한 지역의 평균이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비해 높았음
  - 이는 숙박, 교통 등 관광인프라가 미비할 경우, 여행지에서의 물가나 이동 비용이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제4장

##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 제1절 관광의 경제효과 관련 선행연구

## 1. 국내 선행연구

- 국내에서 진행된 관광의 경제효과 관련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이강욱·최승묵(2003)과 박문수 외(2015)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음

### 1)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이강욱·최승묵, 2003)

- 이강욱·최승묵(2003)은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 강원도, 제주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음
  - (분석방법) 입지상계수법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으며, 관광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기준을 비교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음
  - 대상 지역에서 관광산업과 타 산업 간의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고용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간접세유발승수, 수입유발승수, 영향력계수 및 감응도 계수를 비교·분석하고, 관광객 지출액의 지역경제 기여도 또한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총량 측면에서는 강원도에서 관광의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크게 나타났다으나 지역내총생산 및 고용창출 기여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주도의 관광객 지출이 지역경제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2) 관광수요 패턴 변화가 내수 경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박문수 외, 2003)

- 박문수 외(2015)는 국내 관광소비의 변화가 내수 경제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모형을 제시하고, 관광소비 패턴의 변화가 내수파급효과에 미

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 (분석 방법) 관광소비의 변화와 내수 경제의 관계는 산업연관분석 중 수요-수요 모형을 구성한 뒤, 내수 변화가 내수 자체를 변화시키는 내수-내수 모형을 이용함  
- 관광소비 패턴의 변화와 내수 파급효과의 관계는 2008년 내외국인 품목별 관광 지출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2010년 산업연관표와 연계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관광수요가 5% 증가할 경우 1조 9천억 원, 10% 증가할 경우 약 3조 9천억 원 이상 내수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2. 해외 선행연구

- 해외에서 진행된 관광의 경제효과 관련 선행연구는 대표적으로 Faber and Gauber(2019)와 Rasool *et al.* (2021)로 각각 패널회귀분석 및 패널 ARDL 통합 테스트(panel ARDL cointegration approach)를 이용하여 관광과 경제 성장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임

### 1)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Mexico's coastline (Faber and Gaubert, 2019)

- Faber and Gauber(2019)는 관광산업 발전의 경제적 효과를 멕시코의 마이크로 데이터 자료를 통해 분석함
- 멕시코 관광 수입, 고용, 생산에 관한 자료를 이용한 회귀 분석 결과, 지역 관광 수입이 10% 증가하면 지역의 전체 고용은 2.5%, 명목 GDP는 4% 증가함  
- 특히 관광 수입이 10% 증가하면 지역 제조업 GDP의 3.9% 증가로 이어짐을 보임으로써, GDP 증대 효과의 일부는 제조업에 대한 지역적 승수 효과에 의해 발생함을 발견함
- 다만 관광이 발달한 지역에는 더 큰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러한 지역적 파급효과가 관광산업이 덜 발달한 지역의 경제적 이익 감소에 의해 대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남



2)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and economic growth among BRICS countries: a panel cointegration analysis (Rasool *et al.*, 2021)

- Rasool *et al.* (2021)은 1995-2015년 기간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브릭스 국가(BRICS)들의 인바운드 관광, 금융 개발 및 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패널 ARDL 접근법과 Dumitrescu-Hurlin 패널 Granger 인과관계 테스트를 사용한 분석 결과, 1인당 관광 수입이 1%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브릭스 경제의 1인당 GDP가 0.3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바운드 관광과 경제 성장 사이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임을 보여주며, 브릭스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관광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또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국제 관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함

### 3. 시사점

-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관광수요의 증가 혹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효과는 생산(GDP), 고용, 소득, 경제 성장률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분석됨
-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주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관광 지출액(관광 수요) 증가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이러한 분석 방식은 산업연관표 분석의 일정한 가정<sup>14)</sup> 하에서 최종 수요 변동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실제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는 다를 수 있음

14) 산업연관분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한국은행, 2014). 첫째, 한 산업은 한 상품만 생산하여, 각 상품과 각 산업 부문은 1대 1의 대응관계에 있다. 둘째, 각 상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생산 방법만 존재한다. 셋째, 생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상품을 한 단위 생산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비용 혹은 편익을 발생시키는 외부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해외에서는 국가별 패널 자료(BRICs) 및 지역별 패널 자료(멕시코) 등을 이용하여 관광 수입의 증가가 경제 지표(생산,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추정함
- 해외 선행연구와 같이 실증 분석을 실시할 경우, 관광 수입 증가가 실제로 생산 및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현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지역 관광 수입 증가가 실제 고용 및 생산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최종 수요의 증가가 각 산업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양의 효과도 발생하지만, 지역 산업 구조의 변화와 부정적 외부 효과(negative externality) 등의 발생으로 실제로는 생산 및 고용이 거의 변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현된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소비, 고용, 생산에 대한 실제 자료를 이용한 계량 분석을 통하여, 관광 지출의 증가가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제2절 관광객 유입의 정주인구 소비 대체 규모 추정

---

### 1. 분석 개요

#### 가. 분석 목적

- 본 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인구 감소가 유발할 수 있는 지역 소비 축소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관광객 유입 시 소비 규모와 비교함
- 일본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교류인구 증대 정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관광청은 최근 정주인구 1인당 연간 소비액과 여행객 소비의 비율을 계산하여 발표하고 있음(차미숙 외, 2016; 일본 관광청, 2021)
  - 한국관광공사(2022)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정주인구 1인당 소비를 대체하기 위한 관광객 규모를 계산하여 제시함
- 본 과제는 일본 관광청(2021) 및 한국관광공사(2022)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여 정주인구 소비로 인한 지역 소비 축소 규모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객 규모를 산출해보고자 함
  - 다만 본 과제는 선행연구와 달리 1)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비교, 2)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자원 및 관광인프라 군집별 비교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나. 분석 자료

- (정주인구 소비액) 민간 빅데이터(신용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인구 소비액을 분석함<sup>15)</sup>

- 활용자료는 BC카드 및 신한카드를 통해 지출된 신용카드 소비액을 총 개인 소비 지출액(모든 지불 수단 포함)으로 환산한 자료임
- 각 시군구별 신용카드 매출액은 역내 소비와 역외 소비로 구분되며, 각 시군구에 소재한 가맹점의 매출액 중 해당 지역 거주자로부터 발생한 소비(역내 소비)를 정주인구 소비로 정의함
- (전체 소비액 추정방법) 내국인 소비는 신한 및 BC 카드 외에도 현금, 체크·직불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한국은행 총 개인 소비 지출액 대비 총 신용카드(BC카드+신한카드) 지출액 비중을 보정계수<sup>16)</sup>로 활용하여 각 시군구별 신용카드 정주인구 소비액을 전체 정주인구 소비액으로 환산
  - 다만 지역별로 신용카드 이용률, 신한 및 BC 카드 시장 점유율이 상이할 수 있어, 보정된 금액과 실제 정주인구 소비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본 절의 결과는 절대적 수치보다는 비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지역 간의 상대적 차이,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자원·관광인프라 군집별 상대적 차이, 기간에 따른 상대적 변화 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관광객 소비액) 국민여행조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 지출액을 유형별(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파악하여 사용함

#### 다. 분석 방법

- 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한 정주인구 및 관광객 소비액을 이용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 1인이 유입될 시, 정주인구 감소로 인한 연간 소비 감소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를 비교함
  -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입 정책의 효과를 소비 대체 규모라는 관점에서 예상해볼 수 있음

15) 정주인구 소비액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관광공사를 통하여 제공받았음

16) 보정계수는 한국은행 발표 총 개인 소비 지출액을 총 신용카드 지출액(신한카드+BC카드)으로 나눈 값으로 7.08임

## 2. 분석 결과

### 가. 인구감소지역

#### 1) 인구감소지역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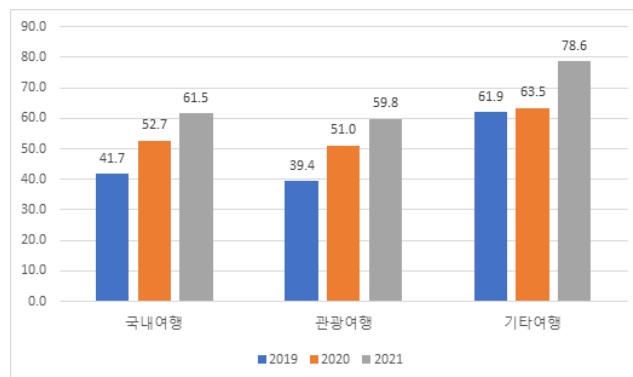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정주민구 1인 소비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관광객 수는 2019년 41.7명, 2020년 52.7명, 2021년 61.5명으로 점차 증가함
  - 이는 2019-2021년 기간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은 27% 가까이 감소한 반면, 정주민구 1인당 소비액에는 동일 기간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임
- 여행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2019년 기준 정주민구 1인 소비를 대체하기 위한 관광 여행객 규모는 39.4명, 기타여행객 규모는 61.9명임
  - 동일한 여행객 1명이 방문한다면, 관광여행객의 소비 대체 효과가 기타여행객의 소비 대체 효과보다 큼

〈표 4-1〉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정주민구 소비 대체 효과

연도	정주민구 소비액(천 원)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천 원)			정주민구 대체를 위한 필요 관광객 수(명)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2019	4,973	119.2	126.3	80.3	41.7	39.4	61.9
2020	4,936	93.7	96.8	77.8	52.7	51.0	63.5
2021	5,363	87.2	89.7	68.2	61.5	59.8	78.6

주: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은 국민여행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시군구별로 추정한 금액이며, 정주민구 소비액은 한국관광공사가 신한카드 및 BC카드 금액을 가공하여 제공함

[그림 4-1] 인구감소지역 정주민구 1인 대체를 위한 필요 관광객 수(명)



## 2) 관광자원 군집별

- 관광자원 군집별로 구분해 봤을 때, 2019년 기준 정주인구 1인 소비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관광객 수가 가장 큰 지역은 유형Ⅱ(역사문화자원 중심형 지역)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유형Ⅰ(자연생태자원 중심형 지역)임
  - 유형Ⅱ의 경우, 국내여행 1회당 지출액이 관광자원 군집 중 가장 적게 나타남
  - 유형Ⅰ의 경우, 국내여행 1회당 지출액이 관광자원 군집 중 가장 큰 반면, 정주인구 소비액은 가장 적어 정주인구 대체를 위한 필요 관광객 수가 적음
  - 정주인구 소비 대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형Ⅰ이 관광객 유입을 통한 대체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음

〈표 4-2〉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정주인구 소비 대체 효과: 관광자원 군집별

유형	연도	정주인구 소비액 (천원)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 (천원)			정주인구 대체를 위한 필요 관광객 수(명)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유형Ⅰ (자연생태 자원 중 심형)	2019	3,995	145.0	150.0	94.3	27.6	26.6	42.4
	2020	3,997	112.0	113.4	97.1	35.7	35.3	41.1
	2021	4,290	99.8	103.2	63.1	43.0	41.6	68.0
유형Ⅱ (역사문화 자원 중 심형)	2019	4,962	103.7	111.1	76.4	47.8	44.7	65.0
	2020	4,935	82.7	85.8	72.3	59.7	57.5	68.2
	2021	5,433	74.0	74.7	71.0	73.4	72.7	76.6
유형Ⅲ (자연생태 자원-레 저휴양시 설자원 혼합형)	2019	5,000	131.3	137.1	77.3	38.1	36.5	64.7
	2020	4,913	101.8	105.4	72.6	48.3	46.6	67.7
	2021	5,231	104.1	107.6	58.9	50.2	48.6	88.7
유형Ⅳ (역사문화 자원-레 저휴양시 설자원 혼합형)	2019	5,713	121.7	128.4	80.2	46.9	44.5	71.2
	2020	5,570	98.2	100.5	85.4	56.7	55.4	65.2
	2021	6,011	90.9	93.6	64.7	66.1	64.2	92.8

### 3) 관광인프라 군집별

- 관광인프라 군집별로 구분해 봤을 때, 2019년 기준 정주인구 1인 소비 감소 대체를 위해 필요한 국내 관광객 수가 가장 큰 지역은 유형Ⅱ(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 지역)이며, 가장 적은 유형은 유형Ⅰ(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임
- 관광인프라가 취약한 유형Ⅰ 지역은 정주인구 소비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관광객 1인 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소비 대체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4-3〉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정주인구 소비 대체 효과: 관광인프라 군집별

유형	연도	정주인구 소비액 (천원)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 (천원)			정주인구 대체를 위한 필요 관광객 수(명)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유형Ⅰ (관광인프라 취약형)	2019	3,585	123.0	131.7	73.1	29.1	27.2	49.0
	2020	3,578	102.1	106.5	79.4	35.0	33.6	45.1
	2021	4,037	95.1	98.8	68.4	42.4	40.9	59.0
유형Ⅱ (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	2019	6,823	109.0	116.3	81.1	62.6	58.7	84.1
	2020	6,680	85.2	86.5	80.4	78.4	77.2	83.1
	2021	7,239	78.1	78.9	73.8	92.7	91.8	98.1
유형Ⅲ (숙박인프라 중심형)	2019	5,483	118.8	124.2	83.5	46.2	44.1	65.7
	2020	5,401	100.1	102.5	86.0	54.0	52.7	62.8
	2021	5,797	94.0	97.1	70.4	61.7	59.7	82.4
유형Ⅳ (관광인프라 준취약형)	2019	4,240	123.0	130.8	77.9	34.5	32.4	54.4
	2020	4,211	89.8	93.8	70.5	46.9	44.9	59.7
	2021	4,587	82.9	85.7	61.9	55.3	53.5	74.1

### 나. 비인구감소지역

- 비인구감소지역에서도 코로나19 기간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의 감소로 인하여 정주인구 1인 소비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 관광객 수가 2019년 6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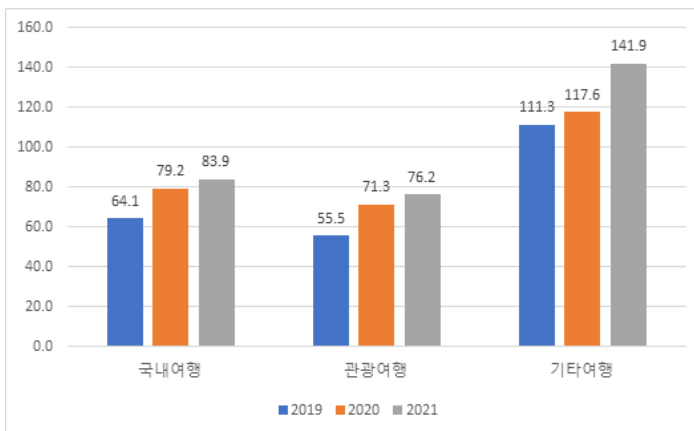
명, 2020년 79.2명, 2021년 83.9명으로 점차 증가함

- 인구감소지역과 비교해보면, 정주민구 1인 대체를 위한 필요 관광객 수가 기간 및 여행 유형과 관계없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비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 및 정주민구의 1인당 지출액 모두 인구감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 차이보다는 정주민구 1인당 지출액 차이가 더 크기 때문임
  - 따라서 관광객 1인 유입의 효과를 정주민구의 소비 대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옴

〈표 4-4〉 비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정주민구 소비 대체 효과

연도	정주민구 소비액(천 원)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천 원)			정주민구 대체를 위한 필요 관광객 수(명)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2019	8,214	128.2	148.0	73.8	64.1	55.5	111.3
2020	8,033	101.4	112.7	68.3	79.2	71.3	117.6
2021	8,356	99.6	109.6	58.9	83.9	76.2	141.9

[그림 4-2] 비인구감소지역 정주민구 1인 대체를 위한 필요 관광객 수(명)



#### 다. 분석의 해석상 유의점 및 한계

- 본 절에서 분석한 관광객 유입의 정주민구 소비 대체 효과 분석은 정주민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 축소를 양적으로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관광객 수를 직관적으로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짐

- 특히 본 절의 분석은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의 경제효과 비교에 주로 목적이 있으므로, 지역별 경제효과 산출에 있어 직접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추정된 관광객 수는 관광객 유입 정책의 수량적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제시된 수치만큼의 관광객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주민구 감소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 영향이 상쇄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는 지역 상품·서비스의 수요자 역할만을 수행하는 관광객과는 달리, 각 지역의 정주민구는 상품·서비스 생산자 및 노동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으로 관광객이 유입되어 정주민구의 소비를 대체하더라도 지역의 고용 및 생산에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실증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3절에서는 관광객 유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 분석을 통해 추정해보고자 함

## 제3절 관광객 유입의 생산 및 고용 효과 분석

---

### 1. 분석 개요

#### 가. 분석 목적

- 본 절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입이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관광과 지역경제의 관계에 관한 분석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바 있으나(이강욱·최승묵, 2003; Faber and Gaubert, 2019),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
  - 본 과제에서는 관광객 유입, 생산, 고용에 관한 최신 자료(2019-2021)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분석 결과는 관광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광객 유입 정책의 효과를 예상함에 있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 나. 분석 대상 및 기간

##### 1) 분석 대상

- 분석 대상은 전국의 161개 시구 지역이며,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82개, 비인구감소지역 79개 지역으로 구성됨(79개 지역에는 특별 및 광역시가 포함됨)

##### 2) 분석 기간

- 분석기간은 고용 효과 분석의 경우 2019~2021년이며, 생산 효과 분석은 2019년임

- 고용 및 생산 분석 모두 가용할 수 있는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함

## 2. 분석 자료

### 가. 고용 효과 분석 자료

#### 1) 자료 소개

- 지역별고용조사(Regional Employment Survey)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가구 단위 조사 자료로, 지역 고용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통계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함
- 반기 조사(1차: 4/15일, 2차: 10/15일)를 원칙으로 하며,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 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 다른 가구 및 종사자 단위 설문조사와 달리 세분화된 지역(시군) 단위에서 개별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및 거주지, 연령, 성별 및 취업자의 직업, 직장의 산업 분류, 연령, 임금 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
-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어 있으나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 단위<sup>17)</sup>에서 구축되어 있어, 부산, 대구, 인천에 속한 7개 인구감소지역의 고용의 경우 관할 광역시에서 구분해낼 수 없음
- 따라서 광역시에 속한 7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자료의 한계상 관할 광역시에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해당 광역시들은 비인구감소지역으로 간주하여 분석함

#### 2) 분석 표본 구축

- 분석 자료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 MDIS)를 통해 구축하였음
- 상반기 및 하반기 자료로부터 각각 2019-2021 기간의 시군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성별, 산업별, 직업별, 연령별) 수를 계산한 후, 산술 평균한 값을 연 단위 자료로 사용함
- 표준산업분류는 10차 개정 기준임

17) 광역시 내 구 단위 정보가 없음

## 나. 생산 효과 분석 자료

- 지역별 경제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자료를 활용
- 지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과 마찬가지로 국제 표준에 의거한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추계가 이뤄지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자료 및 집계 방식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지역내총생산의 합이 국가 전체에 대한 국내총생산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음
- 지역별 지역내총생산은 지역 내 산업별 총부가가치의 합에 지역 내 순생산물세의 합으로 구성
- 최소 제공 단위는 시군구 수준이지만, 본 절의 분석에 함께 사용되는 지역별고용조사 자료의 지역 구분을 고려하여 시군 수준에서 합산한 2019년 자료를 사용

## 3. 분석 방법

- 시구 단위 패널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관광객 유입이 종속변수(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분석모형)

$$y_{j,k,t} = \beta_0 + \beta_1 TRAVEL_{j,k,t} + \mu_k + \delta_t + \epsilon_{j,k,t}$$

- $y_{j,k,t}$ : k 시도, j 시군구의 t 시점 고용 및 생산
- $TRAVEL_{j,k,t}$ : k 시도, j 시군구의 t 시점 관광객 유입(지출액 기준)
- $\mu_k$ : 각 시도의 관측 불가능한 특성(지리적 특성 등)
- $\delta_t$ : 각 연도별 거시적 특성
- $\beta_1$ : 지역 관광객 유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

- 관광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에 주로 사용된 산업연관분석의 경우, 지역 경제 분석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한계를 가

짐을 고려하여(김하영 외, 2022), 본 과제에서는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함

- 첫째, 산업연관분석은 관광 지출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양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음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관광객 유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오버투어리즘, 지역 투자의 비효율적 배분 등)으로 인한 음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관광객 유입의 효과를 실제보다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존재함
- 둘째, 산업연관분석은 일반적으로 사업비 지출에 따른 간접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방법으로 실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실현된 경제적 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아님
- 셋째, 관광객 유입의 실제 경제효과는 외생적인 충격(코로나19, 경기 침체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 → 그러나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함
- 반면 본 과제에서 수행한 회귀분석의 경우, ① 관광객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양의 효과와 음의 효과가 합쳐진 순 효과(net effects)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 ②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실현된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 ③ 시점의 특수성을 통제한다는 점 등에서 앞에서 제시한 산업연관분석의 세 가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4. 분석 결과

### 가. 여행 지출액 증대의 지역 고용 효과

#### 1) 인구감소지역 전체

-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행 지출액 1% 증가 시 고용이 0.18% 증가하여 관광객 유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부문별로 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은 관광 소비 1% 증가 시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이 0.30% 증가한 반면, 비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은 0.16% 증가하여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대 효과가 높았음

- 이는 관광 지출액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부문이 관광 관련 서비스 인 만큼 고용 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크지만,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고용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5〉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고용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고용
	(1)	(2)	(3)
여행 지출액	0.18*** (0.03)	0.30*** (0.04)	0.16*** (0.03)
관측치 수	246	246	246
Adj, R-squared	0.20	0.32	0.19

주. 모든 열의 분석은 상수항, 시도 고정효과 및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함

- 고용을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남성과 여성 고용에 모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계수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음
- 고용을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보면, 청년층(30대 미만), 중년층(4-50대), 장년층(60대 이상) 고용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30대 미만	4-50대	60대 이상
	(1)	(2)	(3)	(4)	(5)
여행 지출액	0.18*** (0.03)	0.18*** (0.03)	0.18*** (0.04)	0.20*** (0.04)	0.16*** (0.03)
관측치 수	246	246	246	246	246
Adj, R-squared	0.20	0.20	0.17	0.18	0.26

주. 모든 열의 분석은 상수항, 시도 고정효과 및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함

## 2) 인구감소지역 관광자원 군집별 효과 차이

- 인구감소지역을 관광자원 군집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각 군집 간 고용 효과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음

- 부문별로 구분해보았을 때도,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 및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고용에 미치는 영향 모두 각 군집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음

〈표 4-7〉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관광자원 군집별

	고용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고용
	(1)	(2)	(3)
자원 유형 I 지역×여행 지출액	0.16*** (0.03)	0.26*** (0.03)	0.13*** (0.03)
자원 유형 II 지역×여행 지출액	0.26*** (0.03)	0.36*** (0.04)	0.24*** (0.03)
자원 유형 III 지역×여행 지출액	0.20*** (0.03)	0.32*** (0.03)	0.17*** (0.03)
자원 유형 IV 지역×여행 지출액	0.23*** (0.03)	0.34*** (0.04)	0.21*** (0.03)
관측치 수	246	246	246
Adj, R-squared	0.28	0.37	0.27

주. 모든 열의 분석은 상수항, 시도 고정효과 및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함

- 성별 및 연령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각 군집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4-8〉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관광자원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30대 미만	4-50대	60대 이상
	(1)	(2)	(3)	(4)	(5)
자원 유형 I 지역×여행 지출액	0.16*** (0.03)	0.26*** (0.03)	0.26*** (0.03)	0.26*** (0.03)	0.26*** (0.03)
자원 유형 II 지역×여행 지출액	0.26*** (0.03)	0.36*** (0.04)	0.36*** (0.04)	0.36*** (0.04)	0.36*** (0.04)
자원 유형 III 지역 ×여행 지출액	0.20*** (0.03)	0.32*** (0.03)	0.32*** (0.03)	0.32*** (0.03)	0.32*** (0.03)
자원 유형 IV 지역 ×여행 지출액	0.23*** (0.03)	0.34*** (0.04)	0.34*** (0.04)	0.34*** (0.04)	0.34*** (0.04)
관측치 수	246	246	246	246	246
Adj, R-squared	0.27	0.37	0.37	0.37	0.37

주. 모든 열의 분석은 상수항, 시도 고정효과 및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함

### 3) 인구감소지역 관광인프라 군집별 효과 차이<sup>18)</sup>

- 인구감소지역을 관광인프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안내·교통·사업·인력 인프라 중심형 지역(Ⅱ) 및 숙박인프라 중심형(Ⅲ) 지역의 경우, 여행 지출액 증대에 따른 지역 고용 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음
- 반면, 관광인프라 준취약 지역(Ⅳ)은 고용 효과가 유의적으로 추정되기는 하였으나 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Ⅱ) 지역 효과의 20%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Ⅰ)은 고용 효과가 소폭이지만(-0.08%) 음의 값으로 추정됨
  - 관광인프라 취약형 지역(Ⅰ)을 산업별로 보면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은 양의 값으로 추정되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이지 않았고,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고용의 경우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관광인프라 취약 지역에서는 지역에서의 관광 소비가 증가할지라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 따라서 관광 소비 증대로 인한 지역 관광 고용 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가는 미미하고,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제한되거나 오히려 구축(crowding effects)되는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존재함
  - 또한 관광산업에서 비관광산업으로의 이동이 발생할 경우, 동일한 매출을 발생 시킴에 있어서 타 부문에 비해서 관광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력이 크지 않을 경우 전체적인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18) 관광인프라 군집 세부 지표별(관광숙박업객실수, 관광안내소수 등) 4분위에 따른 효과도 분석해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도출되지 않았음



〈표 4-9〉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관광인프라 군집별

	고용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고용
	(1)	(2)	(3)
인프라 유형 I 지역×여행 지출액	-0.08*** (0.03)	0.03 (0.02)	-0.10*** (0.03)
인프라 유형 II 지역×여행 지출액	0.22*** (0.02)	0.34*** (0.02)	0.19*** (0.02)
인프라 유형 III 지역 ×여행 지출액	0.12*** (0.02)	0.24*** (0.02)	0.10*** (0.02)
인프라 유형 IV 지역 ×여행 지출액	0.04** (0.02)	0.15*** (0.02)	0.02 (0.02)
관측치 수	246	246	246
Adj, R-squared	0.84	0.83	0.81

주. 모든 열의 분석은 상수항, 시도 고정효과 및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함

- 고용을 성별로 구분해 봤을 때도 다른 인프라 유형과는 달리 유형 I(관광인프라 취약형)의 경우, 남녀 고용 모두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연령과 관계없이 대체로 양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 타 유형과 달리 유형 I에서는 청년층, 중장년층 고용 모두 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특히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남

〈표 4-10〉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고용 효과: 관광인프라 군집별,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성별		연령		
	남성	여성	30대 미만	4-50대	60대 이상
	(1)	(2)	(3)	(4)	(5)
인프라 유형 I 지역×여행 지출액	-0.08*** (0.03)	-0.07*** (0.03)	-0.13*** (0.03)	-0.08*** (0.03)	-0.05* (0.03)
인프라 유형 II 지역×여행 지출액	0.22*** (0.02)	0.22*** (0.02)	0.25*** (0.03)	0.25*** (0.02)	0.18*** (0.02)
인프라 유형 III 지역 ×여행 지출액	0.12*** (0.02)	0.13*** (0.02)	0.10*** (0.02)	0.14*** (0.02)	0.12*** (0.02)
인프라 유형 IV 지역 ×여행 지출액	0.04* (0.02)	0.04** (0.02)	0.01 (0.03)	0.05** (0.02)	0.06*** (0.02)
관측치 수	246	246	246	246	246
Adj, R-squared	0.84	0.82	0.81	0.84	0.74

주. 모든 열의 분석은 상수항, 시도 고정효과 및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함

## 나. 여행 지출액 증대의 지역 생산 효과

### 1) 인구감소지역 전체

-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광 소비 1% 증가 시 생산은 0.13%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음
- 부문별로 보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관광 소비 1% 증가 시 생산이 0.39%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생산의 경우 0.12% 증가하는 효과가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로 관광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2) 인구감소지역 관광자원 군집별 효과 차이

- 관광자원 군집별로 분석하면, 관광 소비 증대에 따른 생산 효과는 자원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유의적인 생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관광자원 유형과 관계없이 관광 관련 서비스업 생산에 대한 효과가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생산에 대한 효과보다 크게 나타남

### 3) 인구감소지역 관광인프라 군집별 효과 차이<sup>19)</sup>

- 관광인프라 군집별로 분석하면, 관광 소비 증대에 따른 생산 효과는 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II)에서 0.13%로 가장 높았고, 숙박인프라 중심 지역(III)에서는 0.03%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문별로 보면, 관광 관련 서비스업 생산의 경우, 모든 군집에서 양의 값으로 추정된 가운데, 효과의 크기는 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II), 숙박인프라 중심형(III), 관광인프라 준취약형(IV), 관광인프라 취약형(I) 순으로 나타났음
  - 다만, 관광인프라 취약형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19) 관광인프라 군집 세부 지표별(관광숙박업객실수, 관광안내소수 등) 4분위에 따른 효과도 분석해보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도출되지 않았음

- 관광인프라 취약형의 경우 (1) 해당 지역 내에서보다는 여행지로의 이동 과정 및 귀가 과정에서의 관광 지출 비중이 컸거나, (2) 동일한 관광 관련 매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비중이 적었을 가능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관광 관련 서비스업 생산 증대 효과가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함
-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생산의 경우에는 안내·교통·사업·인력인프라 중심형(II)에서는 생산 효과가 유의적으로 추정되었지만(관광 소비 1% 증가 시, 생산 0.11% 증가), 그 외 지역에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숙박인프라 중심형, 관광인프라 준 취약형), 오히려 음의 효과(관광인프라 취약형)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관광 수용력을 초과하는 관광객 증가가 물가 및 임대료 상승, 교통 불편 초래 등을 유발하여 오히려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산업의 생산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표 4-11〉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지역 생산(GRDP) 효과

	생산	관광 관련 서비스업 생산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생산
	(1)	(2)	(3)
<b>A. 인구감소지역 전체</b>			
여행 지출액	0.13* (0.08)	0.39*** (0.07)	0.12 (0.08)
관측치 수	82	82	82
Adj. R-squared	0.12	0.29	0.11
<b>B. 인구감소지역: 관광자원 유형별 효과</b>			
자원 유형 I 지역×여행 지출액	0.15* (0.08)	0.37*** (0.07)	0.13 (0.08)
자원 유형 II 지역×여행 지출액	0.25*** (0.09)	0.50*** (0.08)	0.23*** (0.09)
자원 유형 III 지역 ×여행 지출액	0.18** (0.08)	0.43*** (0.07)	0.16* (0.08)
자원 유형 IV 지역 ×여행 지출액	0.19** (0.08)	0.46*** (0.07)	0.17** (0.08)
관측치 수	82	82	82
Adj. R-squared	0.17	0.35	0.15
<b>C. 인구감소지역: 관광인프라 유형별 효과</b>			
인프라 유형 I 지역×여행 지출액	-0.16** (0.07)	0.08 (0.06)	-0.18** (0.07)
인프라 유형 II 지역×여행 지출액	0.13** (0.06)	0.39*** (0.06)	0.11* (0.06)
인프라 유형 III 지역 ×여행 지출액	0.03 (0.06)	0.29*** (0.05)	0.01 (0.06)
인프라 유형 IV 지역 ×여행 지출액	-0.05 (0.06)	0.20*** (0.06)	-0.06 (0.06)
관측치 수	82	82	82
Adj. R-squared	0.66	0.75	0.65

주. 모든 열의 분석은 시도 고정효과 및 연도고정효과가 포함됨. (1)열의 종속변수는 각 시구별 생산으로 각 시구 내 산업별 총부가가치의 합에 시구 내 순생산물세의 합으로 구성됨. (2)열의 종속변수는 각 시구별 관광 관련 서비스업 생산으로 도매 및 소매업(G)과 음식 및 숙박업(I)의 시구 내 총 부가가치의 합임. (3)열의 종속변수는 각 시구별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생산으로 전체 산업 중 관광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시구 내 총 부가가치의 합임.

## 제4절 소결

---

- 본 장에서는 국내여행 및 지역경제 현황(소비, 고용, 생산)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핵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 관광객 유입의 정주민구 소비 대체 효과

- 인구감소지역에서 정주민구 1인의 연간 소비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여행객 수는 2021년 기준으로 61.5명(관광여행 59.8명, 기타여행 78.6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비인구감소지역보다 적은 수준임
  - 관광객 1인이 유입됨에 따른 정주민구 소비 대체 효과가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인구감소지역보다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함
- 관광객 1인 유입의 소비 대체 효과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은 인구감소지역은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 및 정주민구의 1인당 지출액 모두 낮지만, 정주민구 1인 지출액 차이에 비해서 관광객 1인당 여행 지출액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 나. 관광객 유입의 생산 및 고용 효과 분석

- (고용) 실증분석에 따르면 관광 수입의 1% 증가는 인구감소지역 고용을 0.18%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
  - 고용 증대 효과는 관광 관련 서비스업 고용에서 더욱 크게 추정되었으나,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고용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구분해보았을 때, 성별·연령(청년층, 중장년층)에 관계없이 관광 수입 증가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생산) 관광 수입 1% 증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산(GRDP)을 0.1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 증대 효과는 주로 관광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관련 서비스업 외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관광객 유입은 인구감소지역 고용 및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관광 관련 인프라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고용 및 생산 효과의 격차가 있음
  - 관광자원에 따른 차이도 있지만 관광인프라 차이로 인한 효과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남
- 관광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관련 서비스업 고용 및 생산 효과도 제한적이고, 관광 관련 서비스업 이외 산업에는 일부 부정적인 효과도 관찰됨
- 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 수입의 증가는 지역 고용 및 지역 생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 정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을 시사함
- 둘째, 인구감소지역 중 관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경우,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고용 및 생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광객 유입 정책의 단기적인 효과는 관광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지역에서 잘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입 정책 시행 시 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제5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제1절 결론

---

-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 문제가 비단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광 분야의 기존 논의<sup>20)</sup>나 정책은 인구 감소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 위기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광 영역에서도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관광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에 대하여 관광 공급 여건 및 수요 측면의 국내관광 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둠
- 먼저 2장에서는 동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관광 공급 여건으로서 관광자원과 관광인프라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유형화하여 분석을 실시함
- 인구감소지역의 유형화를 통한 관광 공급 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관광인프라 수준에 있어서도 일률적이지 않으며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3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수요 현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 국내관광 실태 분석을 실시함

---

20) 김현주 최경은 김형중(2020)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국내관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변화로 지역 공동화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강화를 제시함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국내여행 횟수, 일수, 총 지출액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
-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유형화에 따른 비교 분석도 병행하여 실시
- 인구감소지역의 국내관광 실태 분석 결과,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국내여행 횟수, 일수, 총 지출액 모두 평균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4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을 정주인구 소비 대체 효과 분석과 지역의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효과 분석으로 나누어 실시함
- 먼저 정주인구 소비 대체 효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객 1인 유입에 따른 정주인구 소비 대체율이 비인구감소지역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관광인프라 구축 정도에 따라 고용 및 생산 효과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있어 관광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가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2019-2021년으로 비교적 단기이므로 관광객 유입이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남음
  - 특히 생산 효과 분석의 경우, 활용 가능한 자료가 2019년 한 시점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간적 특성을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 분석을 위한 자료가 더 축적된 후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증분석의 범위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입이 고용과 생산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 추정으로 제한되어 있음
  -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관광객 유입이 고용과 생산에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관광객 유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본 절에서는 앞서 2장~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문제에 대해 관광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수단 발굴을 위한 방향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고자 함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관광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인 정책 수단을 발굴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함
-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관광 영역의 대응 방향성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인구의 사회적 이동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 그리고 관광은 기본적으로 이동을 전제로 하는 활동임을 고려하여 모색함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방향성은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학적 요인보다는 인구 이동(유입과 유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관광수요와 관광공급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함
- 또한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면서 행정안전부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대응책을 모색함에 따라 타 부처와의 연계협력 강화도 방향으로 제안함

### 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수요 창출 및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활력 제고 도모

- 제3장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비인구감소지역보다 관광 횟수, 관광 일수, 관광 지출액이 낮아 관광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관광객 1인당 지출액도 적음

- 그러나 4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비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정주민 1인의 연간 소비 감소분을 대체하기 위한 필요 관광객 수가 적음
  - 따라서 관광객 1인 유입의 효과를 정주민의 소비 대체 효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구감소지역에서의 관광객 유입 정책이 비인구감소지역에서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또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방문 소비 증가는 인구감소지역 상권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하여 방문 소비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숙박여행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체류형 관광수요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체류형 관광수요 확대와 관련하여 현재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을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입과 연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개선을 위한 관광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sup>21)</sup>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수요에 더하여 재방문 관광수요를 창출 및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정책 수단의 발굴이 필요함<sup>22)</sup>
  - 일본 관광청의 경우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여행, 다시 돌아가는 여행’이라는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보급·정착시키기 위하여 2021년부터 ‘제2의 고향 만들기

21)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인구감소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나,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보는 ‘체험형 관광’과 ‘체류형 관광’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문화체육관광부, 2019.10.16.). 이소영(2022)은 체류형 관광을 활용한 지역 인구 유입 전략의 예시로 지방이주 촉진을 위한 현지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함(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2)

22) 일례로 한국관광공사는 인구감소지역의 방문 횟수와 체류 기간을 늘려 방문자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사업을 2022년 10월부터 추진하고 2023년부터는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임(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2022.9.26.)

프로젝트'를 기획·추진

- 중장기 체재자 또는 반복·계속적인 방문자 등 새로운 교류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롭게 부상하는 관심 분야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여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스타일의 여행 정착에 기여하는 모델 실증 사업을 발굴
- 2022년에 19개 지역을 모델 실증 지역으로 선정하여 숙박시설이나 거리의 체재 환경 정비, 교통수단 정비, 마케팅 등 지역 만들기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
- 또한 코로나19 이후 라이프 스타일 및 근무형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여행방식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 수요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나.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 도모

- 앞선 4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이 지역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
- 이에 관광목적지로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공급 기반을 확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를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붕괴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여 인프라 및 생활서비스 등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인구감소 지역의 문제는 관광공급 관점에서 접근해 볼 때, 크게 관광인력 부족, 관광숙박 부족, 관광안내 부족, 관광교통 부족 문제 등으로 나타남
  - 앞선 2장에서 관광 공급 여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도 관광인프라의 수준의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남
- 먼저 관광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인력의 유출이라 할 수 있음
  - 최예술(2022)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동에 있어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20~30대 젊은 층의 이동 확률이 높게 나타남

- 인구 감소,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은 관광공급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관광객 방문 감소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의 관광산업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청년 인력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타 지역의 청년 인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른 관광 분야 비즈니스와 일자리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함
  - 현재 지역 주민 주도형 지역관광을 위해 추진 중인 관광두레 사업,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등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분야 비즈니스 및 일자리 확충과의 연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 인력을 관광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광인력 부족에 이어 관광숙박 부족도 인구감소지역 관광공급에서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인데,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관광 수요로 떠오르는 위케이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숙박의 확충이 중요함
-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유형의 숙박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숙박 공급 현황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규제 개선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상 인구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빈집, 노후·유헴 시설이나 유헴 공간을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sup>23)</sup>
-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안내 및 관광교통 부족 문제에 관하여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광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관광교통 부족 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교통취약지역에서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인 DRT(수요응답형 교통)를 관광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관련 법·제도 정비, 시범 사업 추진 등)

23) 일례로 정부는 신산업 영역 갈등 해결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을 적용하여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 사업 추진을 의결한 바 있음(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9.21.)

## 다.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적 접근 강화

-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sup>24)</sup>, 농림축산식품부<sup>25)</sup> 등 주요 관계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사업들을 추진 중임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인구의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문체부의 신규 정책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한편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앞선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위기가 커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관련 정책지원 규모를 키우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0조 원 규모로 향후 10년간 지자체가 주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므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체부의 새로운 관광정책 발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관광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는 국가사무를 발굴하여야 함
  - 대부분의 지역관광 관련 사업들이 지방사무로 이양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역할과 국가사무를 발굴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개별 지역 단위의 관광 활성화 지원이 아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여 관광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확대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거나 시·군 단위를 넘어서 인구감소지역 간 또는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을 연계하는 소권역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임
  - 생활인구 유입 확대 접근은 앞서 언급한 중장기 체류관광객, 재방문 관광객, 위

24)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 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개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8.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89곳)은 국토교통부의 성장촉진지역과 100% 중복 지정된 지역임(차미숙·최예슬·조은주, 2022.2.17.)

25)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정주민구 증가를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과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그리고 농촌 전반의 정주민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 공간 개선 대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편지은, 2022)

케이션 방문객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생활인구 용어 정의에도 포함되어 있음

- 소권역 단위의 연계협력적 접근은 신규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DMO 등 기존 정책사업들을 보완·발전시키는 데 있어 반영할 필요

-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우수 사례와 소권역 연계협력형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관광이 인구 감소라는 지역적·국가적 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둠
- 한편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를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함
- 행정안전부의 신규 정책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시장을 관광과 연계하는 문체부의 신규 정책사업 발굴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즉, 답례품 시장을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기념품이나 여행 상품 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관광을 브랜드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구 감소 대응정책은 행정안전부 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여러 중앙부처 간 연계협력 강화, 범부처 차원의 협업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도록 함
  - 인구 감소 문제 대응 관련한 타 부처 소관의 정책에 관광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부처 간 소통과 협력 강화 필요



---

## 참고문헌

- 강지수·조장희(2018), 지역별 인구구조와 사업체의 업력구조 및 성과. 경제분석, 24(4). 101-128.
- 구형수 외(2018),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2.8.1.), 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 국토연구원(2021),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행정안전부.
- 기정훈(2011),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쇠퇴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회입법조사처.
- 김하영·이준성·신현태·김나운(2022),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사업. 2022년도 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현주·최경은·김형중(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관광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현호(2021), 지방소멸,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꼭 알아야 할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131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박진경(2019),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이제연·김도형(2021),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 방지전략의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0.09.21.),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열린다…50채 미만·연 300일 이내.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국민여행조사 분석편.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9.10.16.),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지역주민 주도형 생활관광 콘텐츠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2022), 지역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살아보기 관광 활성화 세미나 발표자료집.
- 박문수·고대영·이상호(2015), 관광수요패턴 변화가 내수경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2015-748, 산업연구원.
- 박승규·이제연(2017), 인구감소지역의 지정기준과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지방행정연

구원.

- 박진경·김현호·김상민·임태경(2019),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변필성·임상연·김명수(2014),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 방안, 국토연구원.
- 이강욱·최승묵(2003),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이상림·이지혜·Bernhard Köppen·임소정·성백선(2018),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호(2016),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 이소영·김도형(2021), - 작지만 강한 연결 -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방안, 2021 정책이슈리포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양구·김원태·정영진·김광득·류근호. (2005), 날씨 마케팅 적용을 위한 기후 데이터의 군집 분석,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7(3). 132-152.
- 이제연·이소영(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적합한 지역일자리 설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석희(2018), 인구감소도시의 유형과 지리적 특성 분석, 국토지리학회지, 제52권 1호, pp. 65-84.
- 전치혁(2020),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응용, 한나래아카데미.
- 정성호(2019), 강원도 인구변화와 지역소멸 위험, 사회과학연구, 58집 1호, pp. 3-22.
- 차미숙(2016), 인구감소시대, 관광진흥을 통한 지역 체재·교류인구 증대전략, 국토정책 Brief 제588호, 세종: 국토연구원.
- 차미숙·최예슬·조은주(2022.2.17.),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국토이슈리포트, 제57호, 국토연구원.
- 최예슬(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 WP 22-06, 국토연구원.
- 편지은(2022), 농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요 대응정책과 향후과제, 이슈와 논점, 제1966호, 국회입법조사처.
- 하혜영·김예성(2021),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관광공사(2022), 데이터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관광현황 분석.
-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2022.9.26.), 인구감소 지역을 관광활성화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1),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 연구,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2),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은행(2014), 산업연관분석 해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2.8.),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8.16.),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안내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5.29.),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개선·지역활력도모 체계적 지원 확대.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9.6.), 인구감소지역,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한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8.28.),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명칭 공모전' 개최.
- 허문구 외(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Faber, Benjamin, and Cecile Gaubert.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Mexico's coastline." *American Economic Review* 109.6 (2019): 2245-93.
- Gibson, G., O'Faircheallaigh, C. & MacDonald, A.(2008), Integrating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to Development Planning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Workshop), Fargo, ND: IAIA.
- Rasool, Haroon, Shafat Maqbool, and Md Tarique.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m and economic growth among BRICS countries: a panel cointegration analysis." *Future Business Journal* 7.1 (2021): 1-11.
- 観光庁 (2021). 観光を取り巻く現状及び課題等について.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www.kosis.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

# ABSTRACT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Tourism in Population-Declining Areas**

Jisoo KANG, Kyung-Eun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economic effect of tourism in population-declining area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conducts three analysis, which examine tourism supply conditions, tourism demand, and the economic effects of tourism in population declining areas. In the analysis of tourism supply conditions, we categorize 89 population-declining areas by tourism resources and tourism infrastructure using cluster analysis and quantile analysis. We find that 89 areas are heterogeneous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tourism resources and the level of infrastructure.

In the analysis of tourism demand, we found that the average number of travels, days of stay, and total expenditures in population-declining areas are smaller than those in non-population-declining areas, which implies that population-declining areas have smaller tourism markets than non-population-declining area. We also find that the size of tourism markets is heterogeneous even within the 89 population-declining areas.

In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of the tourism, we analyze the effect of tourism in terms of both substitution of the residents' consumption and increase in employment and production. We find that the influx of one tourist has a greater effect on the population-declining area than on the non-population-declining area in terms of replacing consumption of the resident population. We also find that the increase of tourists consump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employment and

production in population-declining areas, and the effects are greater in areas with high tourism-related infrastructure levels than in areas with low levels.

The policy implications obtained by our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inflow of living population and enhance regional vitality by creating and expanding tourism demand in population-declining area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outflow of the local population and expand the inflow by expanding the tourism infrastructure of the population-declining area.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relevant institutions to revitalize tourism in population-declining areas.

### **Keywords**

Population-declining area, tourism, consumption substitution, employment, production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강지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제1장, 제2장 일부, 제3장, 제4장, 연구총괄

### 연구진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2장 일부, 제5장

### 연구 자문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석전문원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마은성 연세대학교 조교수

신동한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이영주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이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조장희 제주대학교 부교수

##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12월 05일

발행일 2022년 12월 05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52-9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34>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강지수·최경은(2022),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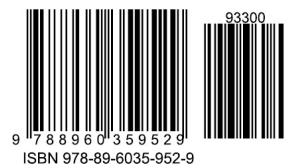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34>



9 788960 359529  
ISBN 978-89-6035-952-9